

## II. 신라의 융성

1. 나제동맹의 결성과 정치적 발전
2. 정치체제의 정비
3. 영토의 확장과 왕권강화

## II. 신라의 융성

### 1. 나제동맹의 결성과 정치적 발전

#### 1) 내물왕의 등장과 김씨 세습왕조의 성립

신라가 낙동강 동쪽의 경상북도 일대를 완전히 지배하는 세력으로 성장한 것은 奈勿麻立干(356~402) 때의 일로 생각된다. 그는 김씨로서는 처음 왕이 된 味鄒尼師今(262~283)의 조카·사위 혹은 동생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계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계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미추와 어떤 형태이건 연관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내물마립간의 등장에서 주목되는 점은 우선 그의 등장 이후 김씨의 왕위 계승이 본격화되어 신라의 마지막 세 왕을 제외하고는 신라 멸망에 이르기까지 김씨 세습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이고,<sup>1)</sup> 다른 하나는 마립간이라는 칭호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마립간이란 왕호는 내물에서 시작하여 炤知麻立干(479~499)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데, 이 시기 약 150년간을 흔히 마립간시대라고 부른다. 《三國史記》에는 내물 다음다음 왕인 訥祗에서부터 마립간 칭호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三國遺事》에는 내물왕 때부터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쓴 것으로 되어 있다. 두 기록의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내물대에 마립간의 칭호를 쓴 것으로 보겠다.

마립간의 뜻에 대하여는 《삼국사기》에서는 金大問의 말을 인용하여 “마립

---

1) 崔彦擣가 지은 〈眞空大師碑〉에 “金氏は 聖韓에서 비롯하여, 奈勿에서 興盛하게 되었다”고 하였다(《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135쪽).

이란 말뚝(櫛)을 이른 것이고, 이는 「誠操」의 뜻으로 자리를 정하여 두는 것이니, 王櫛이 주가 되고 臣櫛이 아래에 벌려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sup>2)</sup> 《삼국유사》에서는 「함조」를 「櫛標」로 쓰고 있어 동일한 해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우리 말의 머리(頭), 마루(宗·棟·廳) 등의 말과 같은 어원의 말일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sup>3)</sup> 이 해석에 따르면 마립간은 우두머리, 또는 제일의 干이라는 뜻이 되어 최고 지배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장자라는 의미를 갖는 尼師今에 비하여 한층 정치 지배력이 강화된 통치자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내물마립간 22년(377)과 27년의 두 차례에 걸쳐 고구려 사신의 안내를 받아 前秦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보아, 내물마립간 때에는 신라가 그 이전 단계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커다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내물마립간 27년에 사신으로 간 衛頭가 前秦王 苻堅과의 문답에서 “중국에서 시대가 달라지고 이름이 바뀌는 것과 같으니(海東의) 지금이 어찌 옛날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sup>4)</sup>라 한 것은 신라가 이제는 국제무대에 등장할 만큼 세력이 확대되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내물마립간을 이어 왕위에 오른 이가 實聖麻立干(402~417)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실성은 大西知 伊瀋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을 뿐 내물마립간과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은데, 《삼국유사》王曆에서는 대서지를 味鄒의 동생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석씨계로 되어 있어, 아직은 김씨의 세습왕권이 튼튼히 자리잡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또 실성은 내물마립간 37년에 고구려의 인질로 가 있다가 내물이 죽기 전해인 내물마립간 46년에 귀국하였는데, 내물왕이 죽자 그의 아들들을 제치고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아 그의 즉위의 배후에는 고구려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는 자신을 인질로 보낸 내물왕을 원망하여 즉위한 다음해에 내물왕의 아들인 未斯欣을 왜에 인질로 보내고, 실성마립간 11년(412)에는 또 다른 아들인 卜好를 고구려에

2)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1년.

3)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乙酉文化社, 1977), 43쪽.

4)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내물마립간 27년.

인질로 파견하였다. 특히 미사흔을 왜에 인질로 보낸 이유는 일종의 군사적 동맹을 맺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阿莘王도 재위 6년(397)에 왕자 腆支를 왜에 인질로 파견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군사외교였던 것임은 〈廣開土王陵碑〉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항해 신라도 미사흔을 인질로 파견하였으나, 결국 이러한 외교전은 백제의 승리로 돌아가 미사흔이 왜에 억류된 것으로 보인다.<sup>5)</sup> 그러나 그 후 고구려의 힘을 이용하여 내물왕의 큰아들인 訥祗를 제거하려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는 오히려 고구려의 후원을 받은 눌지에게 타도되고 말았다.

실성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눌지는 아마도 석씨세력을 철저히 타도하였던 것 같은데, 《삼국사기》에 실성이 죽기 전 해에 “토함산이 무너졌다”는 기록은 脫解가 산신인 토함산의 붕괴라는 표현으로 석씨세력의 몰락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sup>6)</sup> 《삼국사기》에 눌지부터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붙인 것은 아마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내물왕대부터 마립간이란 칭호가 사용되었음은 틀림없으나, 아직까지 이사금시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까닭에 이사금과 마립간이란 칭호가 혼용된 것이 아닐까 한다.

눌지마립간은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즉위하였지만<sup>7)</sup> 왕위에 오른 뒤에는 고구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즉위한 다음 해에 실성에 의해 고구려와 왜에 인질로 파견되어 있었던 미사흔과 복호를 구출하여 신라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 때 朴堤上의 활약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평양으로 천도한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제와 羅濟同盟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 그는 대외적인 위기 속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왕실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하여 왕위의 부자상속 제도를 확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慈悲와 소지는 모두 전왕의 長子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또 왕위계승에

5) 李基白, 〈古代 韓日關係〉(《韓國古代史論》, 探求堂, 1975).

6) 金哲垞, 〈新羅上代の Dual Organization〉上(《歷史學報》1, 1952), 32쪽.

7) 《三國史記》에는 눌지가 스스로 실성을 죽이고 自立하여 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三國遺事》 권 1, 紀異 2, 第十八實聖王條에 의하면 고구려의 군대가 실성을 죽이고 눌지를 세위 왕을 삼은 것으로 되어 있다.

서 특기할 만한 것은 왕뿐만 아니라 왕비까지도 모두 김씨가 독점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고기에 들어가 박씨의 왕비가 등장하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마립간시대는 김씨족의 등장과 함께 그 세력이 강화되어 여타의 박씨·석씨세력을 완전히 압도하고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4세기 중엽에 등장한 김씨족은 눌지대에 이르러 대내적으로는 왕위계승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김씨왕조의 등장과 관련하여 이를 騎馬民族의 도래와 이에 따른 정복국가의 성립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정복국가란 민족이 동기에 만주방면에서 기병전 위주의 전쟁 수행능력을 지닌 집단이나 북방 유목민족이 한반도지역으로 남하하여 토착세력을 제압하고 세운 왕조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신라에서의 정복국가론의 출현 배경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 문제와 3성교립이라는 왕조의 교체, 그리고 積石木槨墳이라는 특이한 묘제의 등장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다.<sup>8)</sup>

한 정복국가설에 따르면 시베리아 동쪽의 오르도스 철기문화가 한국과 직결되는데, 오르도스 철기문화의 주인공들은 漢의 팽창으로 일파는 서쪽으로 이동하여 헝가리 즉 훈족의 나라를 세웠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일파는 한반도로 진출하여 일본열도에까지 상륙하였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라 적석목곽분의 주인공들은 한반도 서북부 지역을 거쳐 동남진한 시베리아계 주민의 후예로서, 시베리아-오르도스계의 대형 적석목곽분과 철기·繩席文土器·金細工技術을 가지고 남하하였다는 것이다.<sup>9)</sup> 또 다른 정복국가설에 의하면 경주에서의 주 묘제의 교체는 그 최고 지배세력의 변동 내지는 지배구조의 변화의 산물로 볼 수 있는데, 신라고분의 축조 시기는 土壙墓 축조기→적석목곽분 축조기→橫穴式 石室墳 축조기로 나뉘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高大封土」인 적석목곽분은 한반도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흑해

8) 정복국가론에 관한 연구사적 정리는 李道學, 〈4세기 정복국가론에 대한 검토〉(《韓國古代史論叢》 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4), 245~278쪽 참조.

9) 李鐘宣, 〈오르도스 後期 金屬文化와 韓國의 鐵器文化〉(《韓國上古史學報》 2, 1989), 15~90쪽.

북안의 스키타이 지역에서 비롯하였으며, 기동력을 갖춘 기마민족의 문화가 신라에 미쳤다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의 민족 대이동기에 적석목곽분을 묘제로 하는 기마민족의 일파가 4세기 전반기에 경주에 도달한 결과 신라에서 김씨왕조가 성립되고 마립간이 등장했다는 것이다.<sup>10)</sup>

고고학적으로 적석목곽분의 등장 시기는 대략 4세기 중엽 무렵이므로 이는 문헌기록상으로 내물왕(356~402)의 등장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sup>11)</sup> 적석목곽분의 기원 내지는 계통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북아시아의 묘제와 연관하여 파악하는 견해가 유력하다.<sup>12)</sup> 따라서 김씨왕조의 등장과 기마민족의 이동을 관련지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 나제동맹의 결성

### (1) 나제동맹 성립 이전의 대외관계

내물왕이 등장하던 4세기 후반 당시의 국제정세는 한마디로 고구려·신라 연합과 백제·왜·가야 연합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구려는 故國原王(331~371) 때에는 遼東郡 지역으로 진출해 있던慕容氏와 충돌하여 그 침입을 받게 되었고 남쪽으로부터는 백제가 帶方郡 지역으로 진출하는 등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고국원왕 12년(342) 모용씨의 침입을 받은 고구려는 다시 丸都城이 함락되는 불운을 겪었

10) 崔秉鉉, 《新羅古墳研究》(一志社, 1992), 397~415쪽.

11) 이에 대하여는 일부 이견이 없지 않다.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19년(435)에 “2월에 歷代의 園陵을 修葺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수습을 신라에서 적석목곽분의 발생을 알리는 「新葬制施行令」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申敬澈, 〈古式鑑子考〉, 《釜大史學》 9, 1985).

12) 金元龍은 후해 북안에서 일어난 목곽분 문화가 시베리아지역으로 전파되어 前漢과 樂浪에도 미치게 되었는데, 경주의 적석목곽분은 그 마지막 형식이라고 하였으며(金元龍, 〈韓國文化의 起源〉, 《文理大敎養講座》 1, 서울大, 10~11쪽), 金秉模는 적석목곽분의 계통을 알타이 지역의 피지락 고분군과, 그리고 신라 금관의 계통을 중앙아시아 지역의 冠帽와 연결짓고 있다(金秉模, 《한국인의 발자취》, 正音社, 1985, 208~209쪽).

고, 고국원왕 39년(369)부터는 백제와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고국원왕 39년 왕은 군사 2만을 이끌고 백제의 북쪽 경계를 쳤으나 백제 近肖古王의 태자 近仇首가 거느린 군대에 의해서 雉壤(白川)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으며, 그로부터 2년 뒤 다시 백제를 쳤으나 俱江(禮成江)에서 백제군의 기습을 받아 또 다시 패배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고구려의 백제 침입은 백제를 크게 자극하여 고국원왕 41년 겨울 왕은 백제의 근초고왕 부자가 거느린 3만 군대의 기습을 받아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이처럼 前燕의 모용씨의 침입과 백제의 북진정책으로 말미암아 고전하던 고구려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국가체제의 개혁이 필요하였다. 이 임무는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小獸林王(371~384) 때에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불교의 수용과 太學의 설립, 그리고 律令의 반포 등 국가체제의 개혁적인 조치가 이 때에 단행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탄탄한 내부정비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대외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수림왕의 뒤를 이은 정복군주 광개토왕(391~412)과 長壽王(413~491)의 등장으로 고구려는 최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광개토왕의 정복사업은 당시 고구려의 서울이던 國內城(滿洲 吉林省 通化專區 輯安縣 通溝)에 남아 있는 유명한 <광개토왕릉비>에 의해 상세히 알 수 있다. 비문에 의하면 永樂 6년(396)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친히 정벌하였는데, 이 원정의 동기에 대하여 비문에는 “百濟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未年來渡海破百殘□□新羅 以爲臣民”이라 하였다. 종래부터 이 辛未年 기사는 해독이 어려워 연구자 사이에 여러 가지 엇갈린 견해가 제시된 바 있고, 일본에서는 이를 근거로 한 때 일본이 한반도의 남부 일대를 지배하였다는 任那日本府說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이 가운데 몇 자는 일본 參謀本部에 의해 고의로 조작되었다는 주장도 있다.<sup>13)</sup>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광개토왕의 백제원정 동기를 확실히 알 수는 없는 형편이다. 어쨌든 이 때에 고구려군은 海路로 臨津江 방면에 진출하여 關彌城(江華 喬桐)·阿旦城(서울시 城東

13) 李進熙, 《廣開土王碑의 探求》(李基東 譯, 一潮閣, 1982), 85~145쪽.

區) 등 58개 성과 700여 개의 촌을 쳐부순 뒤에 다시 한강을 건너 백제 수도인 漢城에 육박하였다. 이에 백제의 아신왕이 항복하였으므로 광개토왕은 백제가 인질로 보낸 王弟와 大臣 10명을 끌고서 본국으로 개선하였다. 《삼국사기》에는 광개토왕의 백제원정이 즉위 직후부터 5년(395)경까지 전후 몇 차례에 걸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문에 의하면 永樂 9년(399)에 신라의 요청으로 그 이듬해에 步騎 5만 명을 보내 신라 국경 안에서 城池를 부수는 등 약탈을 자행하는 백제군과 그에 가담한 任那加羅·安羅·倭의 연합군을 격파한 것은 물론 이를 낙동강 중·하류까지 추격하여 섬멸하였다. 그러나 그 후 영락 14년에 백제가 또 다시 倭軍과 합세하여 옛 帶方郡 지역인 황해도 방면으로 진출하였으므로 군대를 보내 격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아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밀접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던 백제와 신라 사이의 관계도 점차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사건의 계기는 백제의 禿山城主가 주민 300여 호를 이끌고 신라에 와서 투항하자 백제는 그의 송환을 요구하였는데 신라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인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14)</sup>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물마립간대에 신라는 처음으로 前秦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고구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sup>15)</sup>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하자 신라는 이찬 대서지의 아들 실성을 인질로 보내 고구려의 수호에 응하였다.<sup>16)</sup> 여기에는 물론 정적을 견제하려는 내물왕의 의도가 있었음은 다음에 즉위한 실성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내물의 아들인 복호와 미사흔을 각각 고구려와 왜에 인질로 파견하고, 내물의 큰 아들인 눌지마저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라가 일단 고구려의 요청에 의하여 인질을 파견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친백제적인 정책을 수정하여 고구려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였음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14)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내물마립간 18년.

15)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震檀學會, 1959), 401~402쪽.

16)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내물마립간 37년 및 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양왕 9년.



이와 같이 신라가 고구려에 대해 친밀한 우호관계를 맺게 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는 고구려 국력의 상대적 우위이고, 둘째는 신라의 국내 정치상황, 그리고 셋째로는 고구려의 대백제 전략이 그것이다.<sup>17)</sup> 당시 고구려의 국력이 삼국 중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고구려에 밀리고 있는 백제와 연결을 가짐으로써 오는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도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내물마립간 대는 왕권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었던 시기였다. 아직도 불안한 김씨의 세습왕권을 강화하고 같은 김씨내에서의 반대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고구려의 강력한 후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 고구려의 입장에서 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신라를 백제와 떨어뜨림으로써 백제세력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우세한 국력을 바탕으로 신라를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중국에 사신을 보내게 하는 등의 배려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는 자구책으로 가야와 왜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광개토왕 당시에는 고구려·신라 연합과 백제·가야·왜 연합이란 구도로 당시의 국제정세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신라의 고구려 의존성은 점차 심화되어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바와 같이 ‘新羅의 寐錦이 몸소 가서 조공하는’<sup>18)</sup> 형편이 되었으며,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영토에 주둔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sup>19)</sup> 또 <中原 高句麗碑>에 보면 고구려가 신라의 왕을 호칭할 때 「신라매

17)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18, 延世大, 1981), 45~107쪽.

18) 비문에 ‘昔新羅寐錦 未有身來朝貢…’이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9) 《三國遺事》 권 1, 紀異 2, 第十八實聖王條에 “왕이 전왕의 태자인 눌지가 덕망이 있음을 꺼려하여 장차 해치고자 하였다. 고구려의 군대를 청하고는 속여서 눌지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였다. 고구려 사람들이 눌지가 賢行이 있음을 보고는 이에 창을 거꾸로 하여 왕을 죽이고는 눌지를 세워 왕으로 삼고 돌아왔다”고 하였는데, 이로 보아 당시의 신라에는 고구려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中原 高句麗碑>에 ‘新羅土內幢主’란 구절이 보이는데 이는 신라의 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고구려의 幢主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금」 또는 「東夷麻錦」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가 스스로를 중국과 같은 위치에 놓고 신라를 자기의 주변에 있는 저급한 국가로 보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라의 왕과 신료들에게 의복을 下賜하는 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과거 중국의 군현들이 주변의 이민족 국가들을 지배하는 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즉 고구려는 신라에 대해 종주국의 행세를 하고 있으며 신라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신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굴욕적인 것이었겠지만 당시의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2) 고구려의 남하와 나제동맹의 성립

광개토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413~491)은 79년이란 오랜기간 재위하면서 부왕의 위업을 계승하여 고구려의 極盛期를 현출하였다. 그는 중국과는 南朝와 北朝의 대립된 두 세력을 조종하는 외교정책을 펴는 한편 남쪽으로의 진출에 전념하여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427). 천도의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내적으로는 종래 國內城(通溝)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뿌리깊게 잔존하고 있던 옛 고구려의 5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sup>20)</sup> 대외적으로는 남쪽 특히 백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미 광개토왕대에 고구려에게 밀리기 시작한 백제는 고구려에게 빼앗긴 북쪽의 땅을 되찾는 것이 중대한 과제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광개토왕 즉위년(391)부터 나제동맹이 맺어진 장수왕 38년(454)까지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 3회였고, 공격을 준비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것도 3회에 이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백제의 일련의 고구려 공격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고구려에게 연패하는 상황이었다. 백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하나는 신라에 접근하여 신라로 하여금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20) 《魏書》百濟傳에 백제가 보낸 國書 속에 “지금 璉(장수왕)이 나라를 스스로 魚肉을 만들어 大臣과 強族을 살육함이 끝이 없으니 죄가 가득 차고 악업이 쌓여 백성이 무너져 이반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데서 장수왕의 정책을 짐작할 수 있다.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北魏와 연결하여 북위로 하여금 고구려를 견제해 주는 것이었다. 백제의 蓋鹵王은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견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북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다.<sup>21)</sup> 이에 반해 신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는 고구려의 영향권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신라의 이해관계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무렵의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직·간접으로 많은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 그 결과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영토에 주둔하고 심지어는 왕위계승까지도 고구려의 간섭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니, 이는 신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 여기에 고구려의 천도 이후 적극적으로 남진정책을 추구하게 되자 신라가 받는 압력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눌지마립간은 비록 고구려의 힘을 빌려 왕위에 올랐으나, 즉위 후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먼저 전왕대에 고구려와 왜에 인질로 파견된 동생 복호와 미사흔을 귀환시켰는데 이 때에 활약한 인물이 유명한 박제상이다.<sup>22)</sup> 그리고 즉위한 지 17년이 되던 433년에 백제가 먼저 화친을 요청해 오자<sup>23)</sup> 이에 응하였다. 그 이후 양국의 관계는 백제가 良馬와 白鷹을 보내자 신라는 황금과 明珠로 보답하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24)</sup> 이리하여 백제와 신라는 한반도 안에서 고구려세력에 대항하는 견제세력권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21) 《三國史記》 권 25, 百濟本紀 3, 개로왕 18년.

22) 박제상은 《三國遺事》에는 金堤上이라고 하였으나, 《三國史記》列傳에 의하면 그는 박혁거세의 후손이고, 婆娑尼師今의 5대손이라고 했으므로 박씨가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후대에 소급하여 붙여진 것일 뿐 당시에는 아직 姓은 쓰이지 않았다. 또 복호와 미사흔이 인질로 간 시기에 대해서도 《삼국사기》에서는 실성마립간 때의 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삼국유사》에서는 각각 눌지 3년(복호)과 내물 36년(미사흔)의 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귀환의 시기에 대해서도 《삼국사기》에서는 눌지 2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삼국유사》에서는 같은 왕 10년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후의 사정으로 보아 《삼국사기》의 기록이 옳다고 보여진다.

23)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17년 및 권 25, 百濟本紀 3, 비유왕 7년.

24)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17·18년 및 권 25, 百濟本紀 3, 비유왕 7·8년.

신라는 이와 같이 외교노선을 수정함에 따라서 고구려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나라 사이의 마찰은 450년에 신라의 何瑟羅城主가 悉直原에서 사냥하고 있던 고구려의 邊將을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신라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고구려의 장수왕은 군대를 동원하여 신라의 서쪽 국경을 공격하는 강력한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신라는 말을 낮추어 사죄함으로써 일단 고구려의 침입은 저지하게 된다.<sup>25)</sup> 그러나 신라의 이러한 조처는 고구려의 태도가 완강한 것임을 알고 우선 적의 예봉을 피하려는 고식책이었지 고구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본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이리하여 삼국관계는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고구려의 침입에 맞서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는 백제 蓋鹵王 원년(455)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입하자 신라가 원병을 보내어 백제를 구원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sup>26)</sup> 그러나 이러한 신라와 백제의 접근은 고구려의 대규모 침입을 초래하였다.

백제의 개로왕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재위 18년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의 남침을 호소하고 군사원조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도리어 고구려의 침략을 유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장수왕 63년(475) 왕은 3만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로 쳐들어와 먼저 백제의 전진기지인 北城을 함락시킨 다음 江南의 수도 漢城에 육박하였는데, 한성은 공격을 받은 지 7일 만에 함락되었다. 개로왕은 성이 함락되기 직전 성문을 빠져나와 서쪽으로 달아나다가 고구려 군사에 붙잡혀 阿旦城으로 끌려가 참살되고 말았다. 이 때 왕뿐만 아니라 太后·王子들이 고구려군에게 목살을 당하였고 8천여 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한성을 포함한 한강유역 일대를 송두리째 고구려에 빼앗기게 되었다. 당시 백제의 개로왕은 그 아들 文周를 시켜 신라에 구원병을 요청하므로 신라가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미처 이르기기도 전에 백제의 수도는 함락되고 말았다.<sup>27)</sup> 한강유역을 점령한 고구려는 이 지역을 영유

25)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34년 및 권 18, 高句麗本紀 6, 장수왕 38년.

26)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39년 및 권 25, 百濟本紀 3, 개로왕 1년.

27)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자비마립간 17년 및 권 25, 百濟本紀 3, 개로왕 21년.

하러 들었으므로 백제는 하는 수 없이 남쪽 熊津(公州)으로 수도를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고구려의 영토는 竹嶺·鳥嶺 일대로부터 南陽灣을 연결하는 선까지 뻗치게 되었다.

백제가 웅진으로 南遷한 이후에도 신라와 백제 사이의 동맹관계는 계속되었다. 소지마립간 3년(481)에는 고구려가 말갈과 더불어 신라의 북변을 침입하여 狐鳴 등 일곱 성을 취하고 彌秩夫(興海)로 진군하였는데, 신라는 백제·가야의 구원병과 더불어 이를 격퇴하고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여 泥河 서쪽에서 격파하여 천여 급을 베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또 같은 왕 6년에도 신라의 북변을 침입하는 고구려군을 맞아 백제와 협력하여 母山城<sup>28)</sup> 아래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이렇듯 신라와 백제의 관계가 밀접해지자 소지마립간 15년에는 백제의 東城王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므로 왕은 이별찬 比智의 딸을 시집보내어 두 나라 사이에는 혼인관계가 맺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나제간의 밀접한 관계는 바로 이듬해인 소지마립간 16년과 17년에 양국의 합동작전으로 나타난다. 16년 7월에 신라의 北邊인 薩水原에서 신라장군 實竹이 고구려군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犬牙城으로 물러나와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 때 고구려군이 견아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백제의 동성왕이 군사 3천 명을 보내어 신라군을 도와 고구려군을 물리쳤다. 이어 17년 8월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雉壤城을 포위하므로 백제왕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이에 신라왕은 장군 德智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게 하여 고구려군을 물리쳤다.

이러한 신라와 백제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는 진흥왕 9년(548) 고구려의 군대가 백제의 獨山城을 침입했을 때 신라가 군사를 보내 고구려 군대를 격파한 것으로 보아 6세기 중엽까지 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나제동맹으로 인해 한강유역을 점령한 이후에도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고구려의 공격을 일단 저지할 수 있었고, 신라와 백제는 각자 내부정비를 통하여 중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28) 母山城은 현재 鎭川의 大母山城으로 추측된다.

### 3) 마립간시대의 정치적 발전

#### (1) 왕권의 강화

마립간시대의 김씨 왕족의 정치적 위상은 그 이전의 이사금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과거에는 신라의 실질적인 건국 연대를 내물마립간으로부터 보는 견해도 있었을 만큼 이 시기는 정치·사회적인 대변혁의 시기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묘제의 변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묘제인 積石木槨墳은 高塚古墳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그 형태가 커다란 봉분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략 5세기 전반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皇南大塚(98호분)은 경주의 고분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남북직경 120m, 동서직경 80m, 봉토의 높이 23m에 달하며,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천마총도 봉분의 높이가 12.7m이고 지름은 47m로 전체 체적은 9,812m<sup>3</sup>나 된다.<sup>29)</sup>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봉분은 적석이라는 말 그대로 대부분 냇돌을 운반하여 쌓은 것인데, 여기에는 막대한 노동력이 동원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5세기에 들어와 신라의 왕권이 급속히 성장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눌지마립간대에 牛車의 사용법을 널리 알려 물자의 수송을 편하게 하였고, 소지마립간 9년(487)에는 사방에 郵驛을 설치하고 3년 후인 12년에는 수도에 시장을 열어 사방의 물화를 유통하게 하였다. 이는 경제의 발달로 인한 운송수단의 개발과 도로망의 정비,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교역 규모의 확대를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발전과 함께 당시 수도인 경주의 인구도 상당한 증가를 보여 수도의 규모가 확장되었을 것이다. 자비마립간 12년(469)에 서울의 坊里 이름을 제정하였다는 기록은 바로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당시까지의 정치운영의 실체인 部體制를 어느 정도 극

29) 천마총은 5세기 말 내지 6세기 초의 능으로 추정되며, 황남대총은 炤知麻立干의 능으로, 천마총은 智證王陵으로 추측되기도 하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복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사기》 소지마립간 10년조에 “東陽에서 六眼龜를 바쳤는데 배에 글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여섯 개의 눈을 가진 거북은 신라의 정치체제에서 6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30)</sup> 따라서 이는 당시의 6부가 어느 정도 왕권에 귀속한 정치체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지마립간 9년(487)에는 시조의 誕降地인 奈乙에 神宮을 지었다. 신궁의 설치에 대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소지마립간 9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祭祀志에는 지증왕대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기록 중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문제와 또 신궁의 主神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된 문제이다. 주신에 관해서는 크게 박혁거세라는 견해와 김씨의 시조인 聖韓이나 미추 또는 내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당시의 정치적 발전 상황을 고려한다면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시조란 김씨의 시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여겨진다.<sup>31)</sup> 그렇다면 이는 내물왕계 혈연집단의 강한 결합의식을 전제로 하는 종교적 상징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또한 왕권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sup>32)</sup>

## (2) 축성사업

마립간시대의 업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축성사업이다. 지방에 대한 신라의 정책 목표는 복속된 지역을 완전히 영토화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것이었겠지만, 지방관의 파견이 불가능했던 시기에는 巡行이나 지방인을 동원한 축성사업을 통하여 간접적인 지배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히 마립간시대에 들어와서는 전 대와는 달리 복속된 지역에서의 축성사업이 활발히 진행된다는 것은 지방 통치에 있어 커다란 진전이었다고 하겠다. 마립간시대까지의 상고기에 있어서 지방에서의 축성에 관한 기록을 《삼국사기》에서 찾아보면 1~3세기 사이

30) 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관한 研究〉(《韓國史論》 2, 서울대, 1975), 19쪽.

31) 이와는 달리 신궁의 主神을 天地神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崔光植, 〈신라의 신궁제사〉,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205~209쪽).

32)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歷史學報》 52·53, 1972), 79쪽.

에 6곳에서 축성을 하였고 4세기에는 보이지 않다가 5세기 이후의 자비마립간대로부터 지증왕대에 이르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비마립간대에 11곳, 소지마립간대에 5곳, 지증왕대에 12곳에서 새로 성을 쌓거나 증축하였다. 그런데 자비마립간대에 축조된 성 중 9개가 신라의 동북면 및 서북면에 축조되었으며, 소지마립간대의 5개 성은 모두 고구려와의 접경지에 축조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소지왕 19년(497)부터 眞興王 9년(548)까지는 백제는 물론 고구려와 한번도 전쟁을 치루지 않았다.

또 축성에 관한 기록도 구체적으로 役夫의 동원 실태를 전해 주는 것이 있다. 자비마립간 11년(468)에 何瑟羅人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泥河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과, 소지마립간 8년에 一善界의 丁夫 3,000명을 동원하여 일선(善山)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三年山城(報恩)과 屈山城(沃川郡 靑山面)을 쌓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당시의 신라가 지방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제도와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일선군에서 3,000명이란 계획된 인원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초보적이거나 이들 지역에 대한 호구조사가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삼년·굴산의 두 성의 축성은 일선 지역의 주민의 이익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신라의 지배력이 향상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삼년산성과 굴산성을 쌓기 3년 전(483)과 2년 후(488) 두 차례에 걸쳐 왕이 일선에 순행한 것은 이 두 성의 축성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북속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舊小國 내부의 지배계층을 신라의 방식대로 편제하고 통제할 수 있었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가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邑落 내부의 변화로 인해 자신들의 지위에 불안을 느낀 소국 渠帥層이나 유력 세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노력으로 축성사업에 적극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축성을 통하여 지방인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미 5세기의 상황은 고구려나 백제와의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되었고, 소지마립간대만 하더라도 고구



려의 침입이 네 차례나 있었으므로 변경지역의 주민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신라의 중앙정부에 적극 협조하여 축성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복속된 소국들에 대한 영토화 작업이 일단락되는 것이 바로 지증왕대의 지방제도의 정비와 외위제의 마련이라 하겠다.

〈李宇泰〉

## 2. 정치체제의 정비

신라사회의 질적 변화는 4세기부터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 변화가 정치체제에 반영되어 왕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국가의 체제가 완성된 것은 中古期라고 할 수 있다. 중고기란 《三國遺事》에서 法興王대로부터 眞德女王대에 이르는 약 140년간을 지칭한 용어인데, 이 시기는 흔히 고대국가의 성립기라 부르고 있다.<sup>1)</sup> 이 중에 고대국가의 체제의 근간이 완성된 시기가 智證王대와 법흥왕대이다. 물론 이후 眞興王·眞平王·善德女王·진덕여왕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정치제도는 보완·정비되고 武烈王과 文武王대에는 또다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지만, 중고기의 정치체제의 근간은 법흥왕대의 율령의 반포로 일단락된다고 할 수 있다.

중고기에 완성되는 고대 국가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중앙집권체제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듯이 율령의 반포와 불교의 공인은 이러한 중앙집권체제 즉 강력한 왕권의 확립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그 이전 즉 上古期의 정치체제는 部가 개별적인 정치조직과 정치력을 갖는 독립된 존재로 이들 부가 정치의 중심이었으므로 흔히 部制 또는 部體制라고 부른다.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부의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신라의 중앙집권체제의 정비과정은 바로 부체제의 극복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 金哲垸, 〈韓國古代國家發達史〉(《韓國古代史研究》, 서울大 出版部, 1990), 51쪽.

이 장에서는 먼저 중고기에 들어와 정치체제를 새롭게 정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 상고기 이래의 정치체제라 할 수 있는 부체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치체제의 정비과정에 대해서는 지증왕대와 법흥왕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배 경

### (1) 철제 농기구의 보급과 생산력의 발전

신라가 4세기에 이르러 김씨 세습왕조가 성립하고 麻立干이란 왕호를 사용하면서 급격한 정치적 성장이 있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급격한 정치세력 성장의 배경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의 요인을 중국세력과의 또는 삼국 상호간의 접촉이나 항쟁 등에서 찾으려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인 접촉이 신라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였을 것임에 틀림없으나, 그러한 변화와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라사회의 독자적인 성장이 있지 않고서는 안된다. 즉 정치세력의 성장과 변화에는 생산력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 그리고 그 결과 당연히 나타나는 사회구조의 변화 등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농경은 청동기시대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으나, 청동기 후기가 되면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생산도구도 철제 농기구로 바뀌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신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상도 지역의 1~3세기의 토광묘에서 철제 농구가 발견되는데 그 수량은 많지 않았다.<sup>2)</sup> 그러나 4세기 이후 신라지역에는 새로운 철기 제작 기술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그 결과 철제 농기구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4~6세기의 고분과 유적에서 발견되는 철제 농기구의 종류와 수량이 크게 증가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sup>3)</sup>

특히 철제 농기구 중에서도 철제 따비와 팽이류 및 살포·삽날·쇠스랑

2) 金在弘,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地方社會 構造〉(《韓國史研究》 72, 1990), 15~23쪽.

3) 金光彦, 〈新羅時代의 農器具〉(《民族과 文化》 I, 正音社, 1988), 46쪽.

등의 보급은 深耕을 가능케 하여 제초작업의 효율화, 지력 회복기간의 단축, 그리고 황무지 개간에 의한 경작면적의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sup>4)</sup> 그리고 낫 종류의 확대 보급으로 말미암아 수확작업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낫은 요동반도에서 청동기시대 이후부터 나타나지만 매우 소수였고, 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러 손칼(半月形鐵刀子)과 함께 나타나다가 1~3세기 이후에는 낫만이 발견된다.<sup>5)</sup> 이는 철기의 보급 이후 처음에는 반월형식도를 본뜬 손칼이 낫과 함께 사용되다가, 4세기 이후에는 낫만이 사용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반월형식도가 이삭 하나하나를 따는 것임에 반해 낫은 한꺼번에 여러 포기를 뿌리채 베어낼 수 있으므로 수확작업에 매우 효과적이었고 많은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낫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규모 단위의 농업 경영방식이 결정적으로 확립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철제 농기구의 보급과 함께 농업생산에 결정적인 증대효과를 가져온 것은 牛耕의 보급이었다. 우경의 도입 이전에는 사람이 팽이와 따비를 이용하여 밭을 갈거나, 사람이 끄는 쟁기를 이용하여 밭을 갈았다. 그러다가 철제품의 제조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대형의 쇠보습을 소에다 매어 밭을 가는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던 것이다. 우경의 보급 사실을 증명해 주는 대규모의 쇠보습은 그 발견된 예가 그리 많지 않고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지증왕 3년(502)에 “처음으로 소를 밭가는 데 이용하였다”<sup>6)</sup>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의 신라에는 이미 우경이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경의 보급은 농업생산력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는데, 일반적으로 소를 이용할 경우 약 2.4배의 경작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나,<sup>7)</sup> 17배 정도의 경작능력의 提高를 가져왔다고 추측하는 견해도 있다.<sup>8)</sup> 신라의 경우 우경의 보급 시기와 그 효능에 대해 확실한 것을 알 수

4) 李賢惠, 〈三國時代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4~5세기 新羅社會를 중심으로—〉(《韓國上古史學報》8, 1991), 47~56쪽.

5) 安承模, 〈韓國 半月形石刀의 研究—發生과 變遷을 中心으로—〉(서울大 碩士學位論文, 1985), 31쪽.

6)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지증마립간 3년 3월.

7) 木村正雄, 〈中國の古代專制主義とその基礎〉(《歴史學研究》217, 1958), 2쪽.

8) 中國農業科學院·南京農學院 中國農業遺産研究室, 《中國農學史》上(科學出版社, 1984), 153쪽.

없으나, 이로 인해 경작면적의 확대와 농업 경영방식의 소규모화를 초래해 기존의 농촌공동체를 급격히 와해시켰을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4세기 이후에는 철제품의 생산기술이 발전하여 농기구 이외에도 가공도구의 생산도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가공도구를 이용한 토목기술의 증가는 자연히 수리시설의 확충을 가져왔다. 訖解尼師今 21년(330)에 길이 1,800步의 碧骨堤를 개축했다는 기사가 있고<sup>9)</sup>, 訥祗麻立干 13년(429)에는 둘레 2,170보에 달하는 矢堤를 축조했다는 기록이 보인다.<sup>10)</sup> 벽골제의 경우 그 소재지가 김제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백제의 기록으로 보기도 하는 등 이 기록을 사실 그대로 믿기 어려우나, 눌지마립간대에 시제를 축조했다는 기록은 사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가 2,170보에 이르는 대규모임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규모가 적은 수리시설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여러 곳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법흥왕 18년(531)에 전국적으로 제방을 수리하라는 지시를 왕이 내리고 있는데<sup>11)</sup> 이는 당시에 이미 상당수의 수리시설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수리시설이 확충됨으로 인해 생산량도 자연히 증가하였을 것이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畵田 1畝의 수확량이 1.5~2石 정도였는데 비해 澆水田의 수확량은 6石 4斗에 달하여 水田이 한전보다 3~4배 더 수확량이 많았다는 견해를<sup>12)</sup> 참고한다면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당시의 농업생산량에 급격한 증가가 있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된다.

이러한 농업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경작된 곡물의 종류에도 변화가 있었던 듯하다.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에서는 보리나 밀이 잘 발견되지 않는데, 《三國史記》에는 보리와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어느 시기엔가 보리농사가 확대되었음이 분명하다.<sup>13)</sup> 보리는 경작 기간이 짧고

9) 《三國史記》권 2, 新羅本紀 2, 흘해니사금 21년.

10)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13년.

11)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18년 3월.

12) 天野元之助, 〈中國古代農業の展開－華北地方の形成過程－〉(《東洋學報》 30, 1979), 139쪽.

13) 全德在,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역사와 현실》 4, 역사비평사, 1990), 29~31쪽.

李賢惠, 앞의 글, 52~56쪽.

수확시기가 이를 뿐 아니라 그만큼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콩과 함께 널리 재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4세기 이후 관개시설이 확충되면서 점차 벼농사가 확대되어 6세기경에는 벼가 주곡의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 (2) 사회의 변동

이상에서 신라사회가 4~6세기에 들어가면 광범위한 철제 농기구와 우경의 보급, 수리시설의 확충 그리고 새로운 작물의 재배 등을 통해 농업생산력이 급격히 발달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농업생산력의 발달은 생산물의 증가와 함께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변화를 유발하였다고 생각된다.

먼저 1차산업인 농업의 발달은 잉여생산물의 증가로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을 유발하였을 것이다. 소지마립간 12년(490)에 처음으로 경주에 시장을 개설하여 사방의 물화를 유통하게 하였으며,<sup>14)</sup> 지증왕 10년(509)에는 東市를 개설하고 아울러 이를 관할하는 東市典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있다.<sup>15)</sup> 시장이 개설되고 이를 관리하는 관청이 신설된다는 것은 상업이 발전하여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상업의 발달과 아울러 도로망과 운송수단의 정비도 필요하였을 것인데, 눌지마립간대에 牛車의 사용법을 널리 알려 물자의 수송을 편하게 하였다는<sup>16)</sup> 기록을 통해 당시 인력에만 의존하던 운송수단이 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유통물량이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지증왕 6년에 선박의 이로움을 권장하였다는<sup>17)</sup>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운송수단의 변화에는 반드시 도로망의 정비가 필요하였을 것인데, 소지마립간 9년(487)에 사방에 郵驛을 설치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sup>18)</sup>

그리고 이렇게 상업과 운송이 발전하면서 자연히 수공업도 함께 발전하였

14)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소지마립간 12년.

15)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지증마립간 10년 정월.

16)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22년.

17)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지증마립간 6년.

18)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소지마립간 9년 3월.

을 것이다. 당시의 수공업의 발전상은 4~6세기의 적석목곽분의 화려한 부장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비단 왕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분업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농기구 제작 등을 비롯한 수공업에 종사하는 계층이 증가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sup>19)</sup> 《삼국유사》에 전하는 석탈해의 설화에서 그가 대대로 冶匠집안의 출신임을 말하고 있음으로 보아<sup>20)</sup> 야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였으며, 광범위한 철제 농기구의 보급은 더욱 이러한 추세를 부추겼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발전과 함께 당시 수도인 경주의 인구도 상당한 증가를 보여 수도의 규모가 확장되었다. 자비마립간 12년(469)에 서울의 坊里 이름을 제정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sup>21)</sup> 경주의 도시화가 이 시기에 급격한 진전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에도 지증왕 15년에 阿尸村에 처음으로 小京이 설치되었는데,<sup>22)</sup> 아시촌의 위치는 확실치 않으나 지방도시의 성장을 보여 주는 자료임에는 틀림없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경주와 지방도시의 성장은 사회적 분업이 진전되면서 농촌사회에서 이탈한 계층들이 수공업 등에 흡수된 결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자연적인 인구증가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의 인구 변동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농업생산력의 획기적 발전은 당연히 절대인구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며, 많은 인력 동원이 필요한 대규모의 고총고분의 등장은 이를 간접적으로나 증명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상황의 변화로 인해 읍락사회도 적잖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을 것임은 쉽게 추측된다. 우선 철제 농기구와 우경의 보급은 이전의 집체적인 농업경영을 점차 개별적이고 家戶를 단위로 한 방식으로 전환시켜, 기존의 농촌공동체가 급속히 와해되었을 것이다.<sup>23)</sup> 그리고 철제 농기구가 일부 계층에 독점됨으로 인해, 새로운 농업기술과 우수한 철제 농기구나 소 등

19) 朴南守, <신라의 성장과 수공업경영형태>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1996), 31~60쪽.

20) 《三國遺事》 권 1, 紀異 2, 第四脫解王.

21)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자비마립간 12년 정월.

22)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지증마립간 15년 정월.

23) 全德在, 앞의 글, 16~50쪽.

을 보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농민들 사이에 빈부의 차가 확대되어 계층 분화가 확대되었을 것이다.<sup>24)</sup> 일부 계층 중에는 스스로 몸을 팔아 노비로 전락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더러는 수공업에 흡수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계층분화는 이전의 공동체적 결속력을 현저히 약화시켜 중앙의 권력이 지방사회에 침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5세기 이후 경상도지역의 소국의 수장들이 사용하던 금동관이 신라국가의 금관과 똑같은 出字形 立飾으로 획일화되는 것은 바로 신라세력이 이들 소국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결과일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충분한 것이다.<sup>25)</sup> 그리고 <迎日 冷水里碑>에 節居利라는 외위를 소지하지 않은 개인에게 갈문왕 이하의 중앙 고위관직자들이 함께 판결을 내려 특정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고 있는 것은 부의 축적을 통한 계층분화와 새로운 지배계층의 등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라의 중앙집권력은 더욱 공고히 되었으며 과거 소국의 지배자들은 신라의 중앙집권체제에 편입되고 그 지역들은 주나 군으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 2) 부체제

### (1) 부

삼국 모두 연맹체로서 출발한 초기의 정치조직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5부, 또는 6부의 부들이다. 고구려에는 桂婁部를 비롯하여 消奴部·絶奴部·順奴部·灌奴部 등이 있어 정치의 구심점이 되었다. 처음에 고구려의 왕은 소노부에서 나왔으나 나중에는 계루부에서 왕이 나왔고, 절노부는 대대로 왕실과 결혼하여 왕비를 배출한 왕비족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26)</sup> 백제의 경우에도 中部와 前·後·左·右의 이름이 붙는 5부가 있었고, 신라는 사로

24) 全德在, 위의 글, 33~40쪽.

李賢惠, 앞의 글, 69~77쪽.

25) 全德在, <新羅 州郡制의 成立背景 研究> (《韓國史論》 22, 서울대, 1990), 37~45쪽.

26)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국의 모체인 6村이 6부로 발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部에 관한 기록은 《三國志》魏書 東夷傳을 비롯하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초기 기록에서부터 보이는데, 처음부터 이들이 부란 명칭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고구려에서는 「那」 또는 「奴」라는 용어가 일찍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아, 원래는 貫那·椽那·絶奴 등으로 불리던 것이 후대에 중국식 용어인 部가 첨가되어 관나부·연나부·절노부 등으로 된 것이라 여겨진다. 여기에서 「那」 또는 「奴」는 「내」 곧 냇가나 계곡의 어떤 집단이란 뜻으로 쓰인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의 경우에 중고기의 금석문에서 부의 명칭을 흔히 「啄」·「沙啄」 또는 「喙」·「沙喙」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啄」과 「喙」는 「涿」 또는 「梁」으로도 쓰이고 있다. 이 글자들은 아마 「돌」 또는 「돌」이나 「벌」 또는 「불」로 읽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돌」이나 「돌」은 도랑(小川)의 뜻이 아닐까 여겨지는데, 도랑의 고어가 「돌」 또는 「돌」로 다리(橋)나 뚝(堦)의 뜻도 가지고 있었으며, 한자로는 흔히 「梁」을 사용하였다. 이 「양」이 「돌」로 읽혀졌음은 「울돌목」을 「鳴梁」이라고 쓴 것에서 알 수 있다.

韃는 새의 부리를 뜻하는 글자인데, 이는 古所夫里·古良夫里的 夫里나 신라의 徐羅伐·比子伐의 伐과 같은 것으로 「벌」 또는 「불」로 읽혔을 것이고 들(野)을 뜻한다. 즉 韃 또는 啄·涿·梁이란 글자는 어떤 집단이 도랑이나 들을 끼고 있었던 데에서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신라의 6부 명칭 가운데는 이러한 梁이 붙지 않는 漢祗部 등이 있으나 안압지 출토 비편에 「漢只伐部」라고 되어 있어 원래는 어떤 들(伐)의 집단이라는 뜻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신라의 6부는 어떤 川邊의 집단 또는 들(野)의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6부의 명칭이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곧 혈연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들은 지역별로 형성된 단위 집단으로서의 부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집단이 나중에 중국식 명칭을 차용하여 한자로서 자신들을 표현하는 단계에 가서 部라는 용어를 채용

27) 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관한 研究〉(《韓國史論》2, 서울대, 1975), 4쪽.



하게 되었을 것이며, 그 명칭도 한자식의 두 글자로 된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삼국시대의 部란 용어는 그 적용 범위가 중앙정치의 핵심인 5부나 6부에 한정되었다. 신라의 경우 사로국을 형성한 경주 부근의 지역 집단만을 부라 호칭하였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용어를 쓰지 않았다. 경주부지 이외의 지역의 소국들도 초기의 발전과정은 사로국과 매우 유사하였을 것이고, 이들 중에는 4~5세기경까지 그 세력을 확대하여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소국들도 많이 있었으나, 이들 소국들을 구성한 집단에 대해서는 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이들 部集團이 여타의 부족집단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치적 처우에 있어서 이들 부집단의 구성원과 여타의 지방민 사이에는 일정한 차별이 있었다. 특히 신라의 경우에는 문무왕 14년(674)에 外位制가 소멸하기 이전에는 京位는 6部人들에게만 수여되었으며 외위는 지방민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물론 통일전쟁이 치열해지는 중고기 말에는 김유신의 집안이나 竹竹의 예에서와 같이 지방민에게도 경위가 주어지기도 했지만 통일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6부인에 한해 경위가 수여되었다. 이는 6부인과 지방민이 그 소속 집단의 성격이 상이하였음을 말한다. 그 이유는 이 6부가 바로 신라 건국의 주체집단이었던 연맹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의 주체세력이었던 이들은 지배집단으로서의 배타성을 가지고 여타의 지방민에 대해 정치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렸던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이들 6부는 경우에 따라 상호 견제하고 경쟁하기도 하였지만, 대외적으로는 지배자 집단으로서의 강한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대에 신라의 6부는 단지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쓰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부가 각자의 정치적인 세력으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한 이후의 일이다.

## (2) 6부의 기원과 성립

이러한 신라의 6부가 언제 어떻게 성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sup>28)</sup> 이들을 크게 나누면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사로국이 영역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지배세력을 경

주로 이주시키면서 차례차례 성립하였다는 단계적 성립설, 둘째는 6부의 기원을 사로국을 구성하는 경주지역의 지역집단에서 구하는 6촌기원설, 셋째는 원래 3개의 집단이 분화하여 6부가 형성되었다는 분화설 등이 그것이다.

첫째의 단계적 성립설은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허구로 보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즉 斯盧 6村을 허구적인 것으로 보고 사로국의 팽창과정에서 6부가 축차적으로 성립하였다는 학설이다.<sup>28)</sup> 이 견해에 따르면 喙部는 原新羅로 경주평야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자리잡았고, 4세기 중엽에 沙伐國을 복속하고 그 지배자 집단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沙喙部가, 그리고 6세기 초에 半跛國(星州)을 병합하여 本彼部가 성립되어 3部가 되었으며, 그 이후 100여 년 동안에 역시 지방세력 집단을 복속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3부가 단계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우리측 사서의 초기 기사를 철저히 불신하고 당시까지 전해지고 있던 단편적인 금석문 자료에만 의거하여 구성한 가설인데, 최근에 새로운 금석문 자료 특히 〈蔚珍 鳳坪碑〉가 발견되면서 이러한 견해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해지게 되었다.

두번째로 6부의 기원을 6촌에서 찾는 학설은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사로 6촌의 위치를 경상북도 일대로 보는 견해와 경주분지 부근으로 비정하는 견해로 나눌 수 있는데, 6촌을 경상북도 일원에 비정하는 입장에서는 6부의 성립시기를 소지마립간대로 상당히 늦추어 잡고 있다.<sup>30)</sup>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촌의 위치는 경주분지 부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촌의 위치를 경주평야 일대로 보는 학자들도 6촌에서 6부로 전환된 시점에 대하여는 赫居

28) 신라 6부에 대한 연구사적 정리는 다음 논문들이 참고가 된다.

李基東, 〈新羅 骨品制 研究의 現況과 그 課題〉(《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13~20쪽.

崔在錫, 〈新羅의 六村·六部〉(《韓國古代社會史研究》, 一志社, 1987).

李文基, 〈蔚珍鳳坪新羅碑와 中古期の 6部 問題〉(《韓國古代史研究》 2, 1989), 152~163쪽.

全德在, 《新羅 六部體制 研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5), 1~8쪽.

姜鳳龍, 〈新羅 中古期 部の 性格 變化와 姓氏制〉(《典農史論》 1, 서울시立大, 1995), 4~6쪽.

29) 末松保和, 〈新羅六部考〉(《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299~305쪽.

30) 金哲垸, 〈新羅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下(《歷史學報》 2, 1952), 87~88쪽.

世代說,<sup>31)</sup> 儒理尼師今 9年(32)說,<sup>32)</sup> 慈悲麻立干 12年(469)說<sup>33)</sup>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 중에서 자비마립간 12년설은 《삼국사기》의 ‘京都의 坊里 이름을 정하였다’<sup>34)</sup>는 기록에 근거를 둔 것인데, 이는 6부의 성립시기로서보다는 6부의 성격변화의 시점으로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sup>35)</sup> 따라서 신라의 6부는 이사금시대에 이미 성립해 있었다고 보인다.

셋째의 분화설은 최근의 학설인데, 이 설에 의하면 원래 경주평야를 중심으로 하여 喙·彼·岐의 3부만이 존재하다가 5세기 후반경에 喙部는 喙部·沙喙部·牟喙部(漸喙部)의 3부로 분화되고, 彼部는 本彼部와 斯彼部(習比部)의 2부로 분화되어서 (漢)岐部和 함께 6부가 성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36)</sup> 沙喙部の 「沙」나 斯彼部の 「斯」가 모두 「새」(新)라는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견해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 가설이라 생각된다. 다만 「朴·昔·金」의 3姓을 「3부」의 실체로 보는 점은 앞으로 좀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견해의 6촌기원설이나 셋째 견해의 분화설 중 어느 것을 취하든 신라의 6부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경주일대를 중심으로 성립해 있었던 것이 된다. 또 지증왕대에 만들어진 〈迎日 冷水里碑〉에는 4개 부의 이름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래의 6부 중 이름이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부는 이미 그 세력이 미약해져서 도태된 상태라고 생각되므로 6부의 성립시기는 이보다 훨씬 올려 잡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이사금시대에 6부는 성립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유리니사

31) 崔在錫, 앞의 글, 373~374쪽.

32) 丁仲煥, 〈斯盧六村과 六村人の 出自에 대하여〉(《歷史學報》17·18, 1962).

李鍾旭, 〈新羅 上古時代의 六村과 六部〉(《震檀學報》49, 1980), 31쪽.

——, 《新羅國家形成史研究》(1982), 70쪽.

李文基, 〈金石文資料를 통하여 본 新羅의 六部〉(《歷史教育論集》2, 1981), 110쪽.

33) 李丙燾, 〈新羅의 起源問題〉(《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602쪽.

34)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자비마립간 12년 정월.

35) 자비마립간 6년의 기록이 6부의 성격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주장에는 다소의 차이점이 있다.

李鍾旭, 앞의 글(1980), 47쪽.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古代篇》(一潮閣, 1982), 151쪽.

李文基, 〈新羅 中古의 六部와 王統〉(《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8, 1987), 71~73쪽.

36) 朱甫墩,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14쪽.

금대에 6촌을 6부로 改名하고 각각의 부에 姓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sup>37)</sup> 이는 그 사실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기록이기는 하지만 유리니사금대에는 6부의 전신인 6촌사회를 어떠한 형태로든 재편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 부의 구조와 기능

이사금은 진한 소국들의 연맹체의 장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런데 이사금시대에 왕위는 유력한 집단의 장들에 의해 선임되기도 하였고 세습되기도 하였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이를 흔히 「國人」에 의해 추대되거나 세워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국인은 바로 사로국을 구성하고 있는 연맹체의 대표자들이라고 여겨진다. 즉 신라 전체의 국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로국을 구성하였던 유력집단 즉 6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이 당시의 6부의 세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라의 6부는 그 하나 하나가 영역과 정치조직을 가진 단위 정치체로서의 독자적인 기능을 가졌던 것이다.

위지 동이전에 전하는 3세기 무렵의 고구려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각 부의 장의 아래에는 使者·早衣·先人 등의 독자적인 관원이 있어 부내의 일을 독자적으로 처리하였으며, 消奴部는 독자적으로 靈星과 社稷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고 한다. 부여의 경우에도 적이 있으면 諸加들이 스스로 전투에 나선다고 하여<sup>38)</sup> 독자적으로 전투에 나설 정도로 강한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신라의 경우에도 이들 6부가 연맹하여 연맹체를 형성하던 시기에는 각 집단별의 독자성이 매우 강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다음의 기록은 신라 초기의 6부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8월에 音汁伐國이 悉直谷國과 지경을 다투어 왕에게 와서 재판을 청하므로 왕이 이를 난처하게 여겨 이르되, 金官國 首露王이 年老하고 知識이 많다 하고 그를 불러 물었더니 수로가 立議하여 所爭의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37) 《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유리니사금 9년.

38)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高句麗.

이에 왕은 六部에 명하여 모여서 수로를 대접하게 하였는데 五部는 모두 伊滄으로 接待의 主를 삼았으나 오직 漢祗部만이 位卑者로 하여금 主管하게 하였다(《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파사니사금 23년).

위의 글에서 5부가 모두 이찬을 내보냈다고 하였으니 원래 이들 6부가 모두 이찬이란 관직 내지는 관등을 가진 자를 포함한 독자적인 관료체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삼국사기》의 다른 기록에 의하면 한지부에는 이찬인 許婁와 摩帝가 파사왕을 영접하였을 때 마제의 딸을 太子妃로 삼고 허루에겐 酒多 곧 角干의 위를 주었다고 하며,<sup>39)</sup> 《삼국유사》에서도 祇摩尼師今の 비를 마제국왕의 딸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면(《삼국사기》에는 葛文王 摩帝의 딸이라 하였음) 한지부내에도 몇 개의 세력집단이 있었고 이들이 왕국을 칭할 정도로 독자적인 세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혼인 관계를 통해 박씨계 왕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연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석씨의 탈해계도 한지부와 같은 지역을 근거로 한 집단이었다고 추측되는 데<sup>40)</sup> 이들은 각각의 단위체로 존재했으나 때로는 완만한 하나의 지역집단으로 기능하기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신라의 왕은 한 部의 대표자로서 여타 다른 부의 대표자와 동질적인 면을 갖고 있었다. 마립간이라는 칭호는 여러 干들 가운데 우두머리라는 뜻이므로, 마립간시기의 신라의 왕은 여타의 간들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간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범흥왕대에 만들어진 <울진 봉평 신라비>에는 牟卽智寐錦王(法興王)이 喙部(梁部)에 소속된 것으로 나오고, 지증왕대의 <迎日 冷水里碑>에는 至都盧葛文王(지증왕)이 沙梁部 소속으로 나오는데, 이는 당시까지의 왕도 특정한 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그 부의 대표자의 직위를 갖고 있었음을 뜻한다. 즉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왕권이 아직 6부의 세력을 초월할 만한 지위에까지는 오르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영일 냉수리비>에 6부의 유력자들이 王으로 표기되어 지도로갈문왕과 함께 ‘7王等’으로 호칭되고 있음을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39)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지마니사금 1년.

40) 金哲堧, <新羅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 上(《歷史學報》 1, 1952), 28~35쪽.

러한 상황은 〈울진 봉평비〉의 예로 보아 적어도 법흥왕대 초기까지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 (4) 부대표자 회의-화백

부체제 아래서의 중요한 정치 문제는 각 부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는 혁거세의 추대가 6촌의 촌장들의 의논으로 이루어졌다는 신라의 건국설화에서 이미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사금시대에 왕위는 유력한 집단의 장들에 의해 선임되기도 하였고 세습되기도 하였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이를 흔히 「國人」에 의해 추대되거나 세위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국인은 일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6부의 대표자들을 가리키는 말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대표자들의 회의를 흔히 和白이라고 부르는데 화백이라는 명칭은 《新唐書》新羅傳에 처음 보일 뿐 우리 나라의 사료에서는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신당서》에서는 화백회의의 운영원리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만둔다’고 하였으니 이는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정치적 역할이 매우 중대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초기의 화백회의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sup>41)</sup> 그렇다면 초기의 화백회의의 참여자는 6부의 대표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기록은 화백회의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많이 인용되는 기록이다.

왕의 대에 關川公·林宗公·述宗公·虎林公(慈藏의 父이다)·廉長公·庾信公이 南山 弓知巖에 모여 국사를 논의하였다. 이 때에 큰 호랑이가 자리에 뛰어 들거늘 여러 사람이 놀라 일어났으나 오직 알천공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담소하면서 호랑이 꼬리를 잡아 땅에 메쳐서 죽였다. 알천공의 힘이 이와 같고 首席에 앉았으나 여러 사람들은 모두 유신공의 위세에 복종하였다. 신라에는 네 靈地가 있는데, 장차 큰 일을 의논하려고 하면 대신들이 반드시

41) 《新唐書》新羅傳의 기록은 8세기 중반경 신라에 왔던 중국사신의 건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6세기경 상대등과 대등을 중심으로 한 회의체의 이름이 화백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거리감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李仁哲, 〈新羅의 君臣會議와 宰相制度〉, 《韓國學報》 65,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1993, 87쪽).

이 땅에 모여 의논한 즉 그 일이 만드시 이루어졌다. 첫째는 동쪽의 靑松山이고 둘째는 남쪽의 弓知山이고 셋째는 서쪽의 皮田이고 넷째는 북쪽의 金剛山이다(《三國遺事》 권 1, 紀異 2, 眞德王).

이 기록은 물론 진덕여왕대의 것으로 상당히 후대의 것이고 또 회의의 참석자 중에 원래 경주 출신이 아니라 금관가야 출신인 김유신이 끼어 있음으로 보아 원래의 화백회의와는 그 성격이 약간 변질되었다고 보여지지만, 회의의 참석자가 6명이고 또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기 위한 특별한 지역이 있었다는 것은 마치 백제의 政事岩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화백회의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회의의 참석자가 6명인 것은 우연인지도 모르나 6부의 6이란 숫자와 관련지을 수 있다면 원래 화백회의는 6부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영일 냉수리비>에 지도로갈문왕을 포함한 7명의 참석자가 회집하여 중대사를 논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물론 <냉수리비>에서도 참석자의 출신부는 몇 개의 부에 한정되고 있지만 갈문왕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한다는 것은 원래 6부의 대표자가 참석했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42)</sup>

초기에는 6부의 대표자에 의한 회의가 시대가 내려오면서 차츰 변질되어 유력한 부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반면에 대표자를 참석시키지 못하는 부도 생겨나서 부 사이에도 우열의 차이가 점차 분명해졌을 것이다. <냉수리비>와 <봉평비>에서 보는 것처럼 후대에 가서는 화백회의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며 특히 梁部和 沙梁部の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習比部나 漢祇部の 인물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부의 위상과 아울러 화백회의의 운영원리도 초기의 그것과는 상당히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신라가 내물왕대에 이르러서 부족연맹체적 체질을 탈피하고 고대국가로의 모습을 점차 갖추게 됨에 따라 부족장 회의의 전통을 잇는 화백회의도 점차 귀족회의로 바뀌게 되고 그 권위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42) 과거에는 화백회의의 의장은 상대등이고 참석자가 바로 大等이었다는 견해가 유력하였으나(李基白, <大等考>·<上大等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66~132쪽), 최근 냉수리비의 발견으로 화백회의의 의장은 葛文王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 3) 지증왕대

#### (1) 지증왕의 등장

신라가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은 지증왕대의 일이다. 500년 내물왕의 직계인 소지마립간이 죽은 뒤 왕위는 그 방계혈통인 지증왕으로 이어졌는데, 그의 왕위계승은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는 내물마립간의 손자인 習寶葛文王의 아들로 전왕인 炤知의 再從弟로 되어 있으나,<sup>43)</sup> 《삼국유사》에는 내물마립간의 손자로 되어 있어 소지의 再從叔이 된다.<sup>44)</sup> 이 두 기록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단정할 수 없으나,<sup>45)</sup> 그의 혈통이 내물왕의 방계로 왕위계승의 제1후보자가 아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영일 냉수리비〉에 의하면 503년 계미년에 그는 갈문왕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해는 그의 재위 4년째 되는 해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실질적으로 왕위를 계승한 지 4년이 되도록 정식 왕(麻錦王)이 되지 못하고 갈문왕이란 칭호를 사용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왕위계승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46)</sup> 아마 그가 왕이 된 데는 왕비족인 박씨의 후원에 힘입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후 진지왕대에 이르기까지는 박씨가 왕비족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증왕의 등장은 내물왕의 직계손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에 대해 그 방계인 지증계와

43)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지증마립간 4년.

44) 《三國遺事》 권 1, 王曆 1.

45) 지증왕은 즉위시의 나이가 64세였으므로 소지왕과 같은 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三國遺事》의 기록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李基東, 〈新羅 奈勿王系の血緣意識〉, 《歷史學報》 53·54, 1972;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63~74쪽).

46) 文暉鉉, 〈迎日 冷水里 新羅碑에 보이는 部の 性格과 政治運營問題〉(〈迎日 冷水里 新羅碑(가칭)의 綜合的 檢討〉, 한국고대사연구회, 1989), 57쪽.

李喜寬, 〈新羅上代 智證王系の 王位繼承과 朴氏王妃族〉(《東亞研究》 20, 西江大, 1990), 74쪽.



박씨족 연합세력의 도전이 성공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47)</sup>

이렇게 하여 새로이 등장한 지증왕은 그 이후 중고왕실의 실질적인 시조가 된다는 점에서 신라정치사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지증왕대에 처음으로 신궁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것이 비록 사실은 아니라 할지라도<sup>48)</sup> 지증왕대의 새로운 왕계의 형성과 관련되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지증왕대에 이르러 그 이전과는 달리 그들 가계의 직접 조상들을 신궁에 새로이 배향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른 새로운 의례라든가 제의의 성대함이 후대에 기억될 만큼 의미있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 (2) 국호 및 왕호의 개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증왕의 등장은 신라정치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증왕대에는 주목할 만한 일련의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주목되는 것이 국호와 왕호에 대한 개정이다. 이에 관해 《삼국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0월에 群臣이 아뢰기를 “시조 창엽한 이래로 나라의 이름이 일정하지 않아 혹은 斯羅라 하고 혹은 斯盧라 하고 혹은 新羅라 하였으니, 신들은 생각하건대 ‘新’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德業日新)는 뜻이요, ‘羅’는 사망을 망라한다는 뜻(網羅四方)인 즉, 그것으로 國號를 삼는 것이 좋을 듯하오며, 또 생각건대 자고로 국가를 가진 자는 모두 帝 또는 王이라 칭하였는데 우리 시조가 건국한 이래 지금 23世로되 단지 방언으로 칭하고 존호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군신은 한뜻으로 新羅國王이란 尊號를 올립니다” 하매 왕이 거기에 좇았다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지증마립간 4년).

위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德業日新 網羅四方’과 같은 다분히 유교적인 색채가 농후한 덕목을 국호에 대한 설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지증왕대의 일련의 개혁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신라가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47) 李喜寬, 위의 글, 75~78쪽.

4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神宮의 설치에 대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소지마립간 9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祭祀志에는 지증왕대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왕권과 지배조직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요청되는 선진적인 중국식 정치조직과 문물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즉 국호 및 왕호의 漢化政策이 단순한 명칭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당시의 신라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는 다만 명칭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殉葬의 금지, 牛耕의 보급, 지방제도의 실시, 喪服法의 제정 등 일련의 개혁정책이 모두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임을 암시해 준다. 지증왕대에 실시된 지방제도의 정비는 州·郡 등의 명칭으로 보아 다분히 중국적인 제도를 채택한 것이며, 우경의 보급도 중국의 발달한 생산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장려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순장의 금지와 상복법의 제정은 동족적 관계를 명시하는 중국적 사회 편제방법의 도입이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증왕대의 이러한 개혁정책이 중국을 모범으로 하는 것이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증거로 지증왕 3년(502)과 9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 北朝의 北魏에 사신을 파견한 사실을 들 수 있다.<sup>49)</sup> 신라는 이로써 奈勿王 27년(382) 이래 120년간이나 단절되었던 중국과의 교섭이 다시 열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중국식의 지방제도와 상복법 등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중고 율령시대의 단서를 열어 법흥왕대에 율령을 시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어야 할 사실이다.

### (3) 지방제도의 정비

신라 중고기의 지방제도를 흔히 州郡制라고 하는데, 그 근간은 지증왕대에 완성되었다.

왕이 친히 국내의 州郡縣의 제도를 정하고, 悉直州를 두어 異斯夫로 軍主를 삼으니, 군주란 이름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지증마립간 6년 2월)

49) 《魏書》권 8, 帝紀 8, 世宗宣武帝, 景明 3년(502) 및 永平 元年(508) 3월 己亥에 ‘斯羅’가 조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사라가 신라를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다(李基白·李基東, 앞의 책, 153쪽).

위의 기록에서 州郡縣이란 표현은 후대의 粉飾일 것이지만 지방제도가 일 단락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로 여겨진다. 다만 당시의 지방제도는 縣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州와 郡만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지방제도를 흔히 州郡制라고 부른다.

주군제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군사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주의 경우 중고기의 주는 좁은 의미로는 停이 설치된 장소나 정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넓은 의미로는 주의 장관인 軍主의 활동 영역인 軍管區를 의미한다.<sup>50)</sup> 이는 郡縣制 아래에서의 주가 領縣을 거느린 州治 또는 군현을 포함한 영역을 지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실제 중고기의 주는 빈번한 이동과 置廢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바로 정의 이동과 치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고기의 군사조직인 6停은<sup>51)</sup> 지방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며, 大幢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정은 지방에 그 성립 기반이 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주는 비록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 때때로 이동할 수 있는 군정적 성격을 지닌 것이기는 하였으나 점령지 확보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주의 아래에는 군을 두었는데 중고기의 주와 군의 관계는 요즈음의 道와 군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당시의 주는 군과 비슷한 규모의 고유 영역을 갖고 있었으나, 때로는 군사적 목적 등에 의해 인근의 군들을 관할하기도 하였던 것이다.《梁書》新羅傳에 지방에 52개의 邑勒이 있었다는 것은

50) 주의 장관을 軍主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이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木村誠은 州·郡·村에 과전된 지방관을 「軍主—幢主—外村主」의 軍主 계열과 「州行使大等—郡使大等—道使」의 使大等 계열로 이루어진 二重的 支配體制로 보았으며(木村誠, 〈新羅郡縣制의成立過程と村主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3, 1976), 姜鳳龍은 군주는 停의 지휘자였을 뿐이고 주의 장관은 使大等이었다고 하였고(姜鳳龍, 〈신라 「中古」期 「州」制의 형성과 운영〉, 《韓國史論》 16, 서울대, 1987), 李仁哲도 주의 지방관을 州行使大等으로 보고 있다(李仁哲, 〈新羅 中古期の 地方統治體制〉, 《韓國學報》 56, 1989). 그러나 넓은 의미의 주를 軍管區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데에는 별 다른 異見이 없다.

51) 6停의 설치에 《三國史記》職官志에 의하면 모두 眞興王代로 되어 있으나, 그 실제 연대는 이보다 좀더 올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6정에 관한 기록은 神文王代 이후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통일기 이후에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해체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6정은 中古期の 군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지증왕대에 설치된 군의 숫자 또는 주와 군을 합친 숫자라고 생각된다. 이들 주와 군은 다시 몇 개의 城과 村으로 구성되었는데 촌은 당시의 가장 기본적인 지역단위였으며, 성은 단지 城郭이 설치된 촌을 가리키는 말일 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었다. 이들 성·촌에는 재지세력인 村主 등이 있어 국가행정의 말단을 담당하였다.<sup>52)</sup>

#### 4) 법흥왕대

중고기가 시작되는 법흥왕대는 신라사의 커다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였다. 법흥왕대에는 지증왕대의 업적을 토대로 병부의 설치, 율령의 반포, 불교의 공인, 상대등의 설치, 금관가야의 병합, 연호의 사용 등 국가체제의 정비와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들 정책의 의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라가 대내적으로는 왕권이 확립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대등한 국가임을 내세우면서 또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다.

##### (1) 율령의 반포

법흥왕대에 이루어진 여러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이 律令의 반포이다. 율령의 반포를 흔히 고대국가체제의 완성을 가리키는 지표로 삼는 것만 보아도 율령의 반포가 갖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요즈음에 와서야 그 중요성이 인식된 것이 아니라, 당시 신라 사람들도 이를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최치원이 쓴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碑〉에 阿度和尙이 신라에 들어온 시기를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한 지 8년째 되는 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당시의 사람들도 율령의 반포를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율령이란 엄밀하게는 律令格式을 의미하는데, 律은 刑罰法으로 오늘날의 형법과 같은 것이고, 令은 敎令法으로 오늘날의 行政法·私法·訴訟法 등에 해당된다. 그리고 格은 율령을 改廢·변경·보완한 것이며, 式은 율령을 시

52) 李宇泰, 〈新羅의 村과 村主〉(《韓國史論》 7, 서울대, 1981), 69~120쪽.

행하기 위한 세칙을 규정한 것이다. 율령은 중국의 隋唐대에 완성된 것인데, 魏晉南北朝시대에 율과 령이 분화하여 각각 해당 법전을 의미하게 된 이후 고정적인 법전에 대하여 시세의 변천에 적응시키기 위해 격식이라는 새로운 법이 출현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sup>53)</sup> 그러므로 율령의 제정은 곧 국가적 성문법의 제정을 의미하며, 그 법에 의거한 지배체제의 국가를 율령국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법흥왕대의 율령반포에 대해 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주로 일본 학자들은 법흥왕대의 율령반포를 부정하거나,<sup>54)</sup> 극히 일부분 예컨대 公服制의 실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sup>55)</sup>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학자들<sup>56)</sup>과 일부 일본 학자들<sup>57)</sup>은 율령의 반포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그 구체적인 편목까지 유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단양 적성비> 등의 새로운 금석문이 발견되면서 더욱 증거가 강화된 느낌인데 특히 최근에 발견된 <울진 봉평비>로

53) 田鳳德, <新羅의 律令考> (《서울大學校論文集》 4 인문·사회과학, 1956; 《韓國法制史研究》, 서울大 出版部, 1968).

54) 井上秀雄은 신라에서 毗曇의 난을 진압한 이후 김춘추를 중심으로 당제를 도입하여 율령제를 진전시킨 것으로 보았고(井上秀雄, <朝鮮・日本における國家の成立>, 《岩波講座世界歴史》 6, 1971), 石上英一은 통일신라에서 조차 독자적인 율령이 편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당의 율령을 근간으로 하여 시행세칙을 중심으로 변용해서 오직 격식만을 편찬하였을 것으로 보았으며(石上英一, <律令法國家> 1, 《歴史研究》 222・223, 東京, 1979), 北村秀人도 법흥왕 7년에 반포된 율령이란 말은 공복제도의 규정처럼 일반적 의미로 쓰인 것이라는 武田幸男의 견해를 계승하면서 무열왕대나 문무왕대에도 율령이 제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신라의 지배체제나 국제관계로 보아 중국적인 특색을 살린 율령제가 실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北村秀人, <朝鮮における‘律令制’の變質>, 《日本古代史講座》 7, 龍溪書舍, 1982).

55) 武田幸男, <新羅法興王代の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1974).

56) 李基東, <新羅 官等制度의 成立年代 問題와 赤城碑의 發見> (《歷史學報》 78, 1978;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 <新羅의 骨品制度와 日本의 氏姓制度> (《歷史學報》 94・95, 1982).

金龍善, <新羅 法興王代の 律令頒布를 둘러싼 몇 가지 問題> (《加羅文化》 1, 1982).

朱甫墩, <新羅時代의 連坐制> (《大丘史學》 25, 1984).

57) 林紀昭, <新羅律令に關する二・三の問題> (《法制史研究》 17, 1967).

인해 법흥왕대의 율령반포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고 보인다.<sup>58)</sup> 〈봉평비〉에 ‘前時王大敎法’이란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前時에 크게 법을 敎하였다’는 것은 법흥왕 7년(520)의 율령의 반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보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율령의 반포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율령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율령을 제정·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배체제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구려의 경우 소수림왕대의 太學의 설립은 율령의 반포를 위한 기본조건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신라의 경우 지증왕대의 국호와 왕호의 개정은 중국의 유학을 받아들인 바탕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德業日新 網羅四方’에서 ‘덕업’과 ‘일신’은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또 〈진흥왕 순수비〉에도 왕도사상과 《書經》이 인용되어 있으며,<sup>59)</sup> 진흥왕 6년(545)에 《國史》를 편찬하였다는 것을 보아도 유교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법흥왕대에도 이미 유교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법전을 편찬할 수 있는 한학의 소양을 갖춘 학자들이 있었다고 하겠다.

또 지배체제의 강화에 대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증왕대에 실시된 州郡制는 在地勢力家들을 일원적인 국가체제 속에 편입하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치력을 한층 강화한 것인 만큼 이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성립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兵部의 설치로 국왕은 병권을 장악하는 위치에 설 수 있었으며 새로운 군사제도인 전국적인 규모의 법당군단의 설치치는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한층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軍主의 파견과 外官携家制의 실시는 지방에 대한 통치를 한걸 공고화하는 조치였을

58) 朱甫噉, 〈蔚珍鳳坪新羅碑와 法興王代 律令〉(《韓國古代史研究》 2, 1989), 115~137쪽.

59) 金哲堧, 〈三國時代의 禮俗과 儒敎思想〉(《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306쪽.

것이다. 이렇게 강화된 지배기구를 통해 율령은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한 무력적인 시위와 처벌을 <봉평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60)</sup> 그러므로 신라의 법흥왕대에는 율령을 반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며, 그 사실을 의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법흥왕 7년(520)에 반포된 율령의 내용이나 체계, 또는 그 모범에 대하여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율령반포의 기록에 이어 ‘처음으로 百官 公服의 朱紫의 차례를 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까닭에 법흥왕 7년에 반포된 율령이란 바로 공복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衣冠制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sup>61)</sup>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라의 율령은 율과 령을 아울러 갖춘 완성된 법전이라고 생각되나, 그 체계는 중국이나 일본의 율령과 같이 □□令과 □□律로 이름 붙여진 것이 아니라, □□法으로 이름 붙여진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왜냐하면 법흥왕대에 만들어진 <율진 봉평비>에 ‘奴人法’이란 말이 보이는데, 봉평비의 건립이 율령을 반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이고 또 그 성격이 율령의 시행과 관련이 깊은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법조문의 내용을 노인법이라 표현한 것을 보면 이는 법흥왕 7년에 반포한 율령의 한 편목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진흥왕대의 <丹陽 赤城碑>에도 ‘佃舍法’이란 구절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진평왕대의 <南山新城碑>에서도 ‘作節如法’이라 하여 「法」이란 글자가 보이는데 이 또한 당시 신라의 법전체계가 □□法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신라의 율령은 비록 고구려나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체계는 신라 고유의 법을 이어 받은 독자적인 체계와 내용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62)</sup> 《삼국사기》의 色服條에 법흥왕대

60) 李宇泰, <蔚珍鳳坪新羅碑의 再檢討－碑文의 判讀과 解釋을 중심으로－>(《李元淳教授停年紀念 歷史學論叢》, 教學社, 1991).

61) 武田幸男, 앞의 글, 85~93쪽.

62) 田鳳德은 신라 율령은 고구려의 율령을 모범으로 한 것이고, 고구려의 율령은 晉의 泰始律令(267)을 계수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田鳳德, 앞의 글). 이에 반해 林紀昭는 법흥왕대 이후의 신라에는 새로운 율령이 아닌 고유법이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林紀昭, 앞의 글, 154~156쪽).

에 처음으로 6部人의 복색의 제도를 정했으나 이는 오랑캐의 풍속으로 중국과는 다른 것이었고, 金春秋가 중국에 들어갔다 온 이후에 중국의 의관이 신라에 전래되어 중국과 같은 옷을 입게 되었다는 기록<sup>63)</sup>은 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준다 하겠다.

율령의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은 무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율령 속에는 관등제와 골품제에 관한 내용이 비중있게 다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골품제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신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관등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골품제의 성립은 관등제의 제도적인 성립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원래 관등제는 씨족 혹은 부족과 그것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읍락 등이 가진 족제적 규범을 초월할 때 성립하는 일원적인 개인적 신분체제이다.<sup>64)</sup> 그 까닭에 관등제의 성립은 족제적 체제로부터 초월한 군주권의 실재를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골품제의 편성과정에서 그 대상이 된 것은 혈연적 관계에 입각한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의 국가권력이 기존의 족장층의 사회적 기반을 해체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관등제가 개인적인 신분제라면 골품제는 혈족적인 신분제라 하겠다. 따라서 골품제와 관등제는 상호보완적인 것이며 일원적인 관등제를 실시할 수 없었던 신라가 선택한 제도적 완충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라 관등제의 기원은 사료국의 성장과정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이것이 제도로 완성된 것은 6세기 초 지증왕대 이후의 일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골품제도는 율령의 법제적 보장에 의해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골품제의 성립은 법흥왕 7년의 율령반포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65)</sup> 또한 대개 지증왕대에 마련되었다고 여겨지는 외위제도 율령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관등체제의 기본적인 틀은 지증왕대에 마련되었고 이것이 법제화된 것은 법흥왕대의 일이라 할 수 있겠다.

63) 《三國史記》 권 33, 志 2, 色服.

64) 武田幸男, 〈朝鮮三國의國家形成〉(《朝鮮史研究會論文集》 17, 1980), 48쪽.

65) 申東河, 〈新羅 骨品制의 形成過程〉(《韓國史論》 5, 서울대, 1979), 57~61쪽.

李基東, 앞의 글(1982), 142~144쪽.



## (2) 군사제도의 정비

신라 군사제도의 본격적인 정비는 진흥왕대에 大幢의 설치에서 비롯한다고 하겠으나, 진흥왕대의 군사제도 정비의 토대는 이미 법흥왕대에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바로 병부의 설치가 그것인데<sup>66)</sup> 이는 문헌자료에 보이는 최초의 신라의 관부라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크다.

신라의 초보적인 군사제도는 이미 자비마립간대에 左右將軍의 설치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장군직의 설치는 군사권을 왕권의 아래에 집결시키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장군이 이끄는 병사는 대개 6부인으로 이루어진 6부병이 근간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증왕 이후 특히 법흥왕대에 와서는 대규모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sup>67)</sup> 이러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지방민을 대상으로 한 군사제도의 개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병부의 설치는 軍政과 軍令을 분리시킴으로 인해 연맹단계 이래의 兵權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이를 왕권하에 통속시키기 위한 조치로도 이해되고 있는데, 법흥왕대의 병부의 내부조직에는 법흥왕 10년(523)에 설치된 監舍知와 11년에 설치된 軍師幢主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sup>68)</sup> 그런데 이 중에서도 군사당주는 군사라는 지방민에게 주어진 군직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때에 이미 지방민을 근간으로 하는 군사조직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冒頭에 法字를 쓰는 군단 즉 法幢軍團의 조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법당군단의 조직이나 구성에 대하여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으며,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차도 심한 형편이다.<sup>69)</sup> 법당군단의 성립에 대

66)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4년 4월.

67) 신라 군사력의 규모는 奈勿王代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5천 명 정도였으나 이로 부터 약 2세기 후인 眞興~武烈王代에 이르러서는 약 10배나 되는 5만 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李宇泰, 〈新羅 三國統一의 一要因-對地方民 政策을 中心으로-〉, 《韓國古代史研究》 5, 1992, 79~84쪽).

68) 盧重國, 〈法興王代의 國家體制의 強化〉(《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87), 49~57쪽.

69) 法幢軍團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해서는 대개 법흥왕대 내지 진흥왕대로 보고 있는데, 法幢의 「法」이란 글자와 관련지어 이를 법흥왕대에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리라 여겨진다.<sup>70)</sup> 그리고 법당군단은 그 성격상 지역과 관련된 부대와 특수 무기를 사용하는 부대의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과 관련된 부대 중에서도 外餘甲幢과 外法幢은 군관의 수로 미루어 보아 52邑勒에 설치된 부대로 생각된다.<sup>71)</sup>

법당군단은 6停과 함께 신라 중고기의 가장 핵심적인 군사조직인데, 이들 부대의 조직이 주로 지방민을 그 성립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법흥왕대에는 율령의 반포와 지방통치조직의 강화를 통해 전국적인 군사력의 동원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진흥왕대에는 비약적인 영토의 확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 (3) 불교의 공인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고구려나 백제가 왕실의 주도로 東晉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것과는 그 사정이 달랐다. 아마도 초기에는 고구려와 인접한 국경을 통해 민간에 불교가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의 불교 전래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5세기 초 눌지마립간대에 고구려로부터 沙門 墨胡子가 一善郡(善山) 毛禮의 집에 와서 있었는데, 梁나라로부터 온 사신이 가져온 향의 용도를 모르자 이를 일러 주었으며 왕녀의 병을 고쳐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 눌지마립간의 재위 연대(417~

井上秀雄, 〈新羅兵制考〉(《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京俊彦, 〈新羅の法幢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報》 55, 東京, 1979).

武田幸男, 〈中古新羅の軍事的基盤—法幢軍團とその展開—〉(《西嶋定生還暦紀念 東アジアにおける國家と農民》, 山川出版社, 1984).

盧重國, 앞의 글.

李仁哲, 〈新羅 法幢軍團과 그 性格〉(《韓國史研究》 61・62, 1988).

70) 武田幸男, 앞의 글(1984).

71) 外餘甲幢의 군관의 숫자(法幢主 52, 法幢監 68, 法幢火尺 102)와 外法幢의 군관의 숫자(法堂頭上 102, 法幢主 306)로 보아 이들이 동일한 지역에 존재하였음은 분명하다고 생각되며, 그 지역은 바로 52邑勒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외여갑당의 군관의 숫자를 살펴보면 법당주 52인은 52읍특에 한 명씩 배치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그 배수에 해당하는 법당화척 102명은 당주 1명에 2명씩 배치된 것으로 짐작된다.

485)는 梁(502~557)이 아직 건국되기 이전에 해당하므로 연대상의 착오가 있음이 분명하다. 또 〈阿(我)道碑〉에 의하면 미추왕 2년(263)에 阿道가 고구려에서 왔다고 하였는데, 一然은 이 아도가 374년 고구려에 온 아도이며 묵호자와 동일인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sup>72)</sup> 그러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신라에 온 아도는 伊弗蘭寺에 있었던 고구려의 아도와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이들 기록을 종합해 보면 신라에는 법흥왕대 이전에 이미 불교가 전래되어 지방은 물론이고 왕실에까지도 불교가 보급되었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법흥왕대 이전까지는 신라의 불교 보급이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포교로 끝났다고 여기고 있다.<sup>73)</sup> 그러나 소지왕대에 모례의 집에서는 몇몇 승려가 신도를 상대로 경전을 강의하였다고 하며,<sup>74)</sup> 왕실에 梵修僧이 상주하고 있었음을 보아<sup>75)</sup> 신라의 지방과 서울에는 법흥왕대 이전에 이미 불교가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76)</sup> 이는 5세기 초엽의 신라 왕릉 유물에서 연꽃무늬가 나타나고, 불교가 공인될 무렵에 만들어진 順興의 於宿知述干墓의 고분벽화에 불교적 소재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도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다.<sup>77)</sup>

법흥왕 8년(521)에는 南朝의 梁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두 나라 사이에 정식으로 외교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는데, 이 무렵 好佛의 군주로 유명한 양나라의 武帝가 보낸 사신인 승려 元表에 의해 비로소 왕실에 불교가 정식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하여 왕실과 불교가 인연을 맺은 이후 법흥왕은 불교를 크게 일으키기 위해 왕경 안의 天鏡林을 베어서 절을 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법흥왕의 이러한 시도는 귀족들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법흥왕 14년에 왕의 젊은 寵臣인 異次頓은 왕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創寺 준비의 책임을 지고 순교하였다. 흔히 이를 계기로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었다고 하지만, 이차돈

72) 《三國遺事》 권 3, 興法 3, 阿道基羅.

73) 李基白·李基東, 앞의 책, 248쪽.

74) 《三國遺事》 권 3, 興法 3, 阿道基羅.

75) 《三國遺事》 권 1, 紀異 2, 射琴匣.

76) 辛鍾遠, 〈新羅의 佛教傳來와 그 受容過程에 대한 再檢討〉(《白山學報》 22, 1977), 139~183쪽.

77) 辛鍾遠, 〈新羅 佛教傳來的 諸樣相〉(《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1992).

의 죽음으로 인해 곧바로 불교가 공인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천경립에 있고 있던 興輪寺의 공사는 중단되었으므로 이 해는 오히려 불교가 박해를 받은 해이며, 법흥왕 22년에 그간 중단되었던 흥륜사의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아마도 이 때에 불교가 정식으로 공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78)</sup>

이렇게 신라의 경우도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왕실의 적극적인 주도로 불교가 마침내 공인되기에 이르렀는데, 왕실에 의해서 불교가 강력하게 지지받게 된 이유는 불교가 왕권 중심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적합한 정신적인 지주였기 때문이었다. 진흥왕은 신라 최대의 호국사찰인 皇龍寺를 건립하였으며, 그는 불교에 있어 須彌四洲의 세계를 통솔하는 왕이며 輪寶를 굴리며 四方을 위엄으로 굴복시킨다는 轉輪聖王으로 비유되었다. 또 진흥왕이 정복한 지역을 순수할 때는 많은 臣僚들을 대동하였는데, 그에 관한 기록에는 이들 중에서도 승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 이렇게 대등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던 승려는 순수에 따른 여러 의식을 주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불교는 확실히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평왕도 스스로를 釋迦佛에 비기어, 자신과 왕비는 각기 석가의 부모 이름인 白淨과 摩耶夫人으로 이름을 삼았고, 그의 동생들도 석가의 叔父 이름인 伯飯・國飯을 이름으로 하였다. 이는 진평왕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법흥왕 이래 진덕여왕까지 중고기의 왕족들은 그 이름을 불교에서 취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기를 佛教式 王名時代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sup>79)</sup> 중고기의 신라 왕실은 석가의 권위를 빌려서 왕권의 강화를 꾀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처음 불교가 보급되고 공인되는 과정에서 귀족들은 巫覡의 토착적 전통에 집착하여 이를 반대하였으나, 차츰 불교 사상에 포함되어 있는 輪廻轉生思想이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 속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옹호해 주는 이론적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적극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기에 전래된 彌勒信仰은 무불융합적인 성격을 지녔던 까닭에 귀족들의 흥

78) 李基白, 〈新羅 初期 佛教와 貴族勢力〉(《震檀學報》 40, 1975), 25~39쪽.

——, 〈三國時代 佛教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92), 4~12쪽.

79) 金哲垸,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 下(《歷史學報》 2, 1952), 91~92쪽.

미를 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흥왕대에 만들어진 화랑은 미륵의 화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귀족의 자제 중에서 임명되었다. 즉 왕은 자신을 전륜성왕에 비유하면서 그의 치세를 돕기 위한 미륵의 출현을 화랑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륜성왕 사상과 미륵신앙은 정치적 세계와 종교적 세계를 조화시킨 가운데, 왕실과 귀족이 불교신앙면에서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sup>80)</sup>

〈李宇泰〉

### 3. 영토의 확장과 왕권강화

#### 1) 영토의 확장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라는 智證王·法興王代에 이르러 고대국가의 체제를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眞興王代(540~576)에는 정복국가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는 고구려가 小獸林王代의 대내적인 정비단계를 거쳐 廣開土王·長壽王代에 이르러 광범위한 영역을 확보하여 동아시아의 강자로 등장하는 것과 흡사하다.

신라의 진흥왕대란 고구려는 安原王·陽原王·平原王代에 해당하는 시기로 왕위계승 문제로 국세가 쇠약해져 있던 시기이고, 백제는 聖王과 威德王代로 백제의 중흥 운동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국제정세 하에서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한강 상·하류의 고구려의 영토를 공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지역마저 차지하여 新州를 설치하고,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백제와의 전면전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가야지역까지 완전히 합병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편입하는 영토의 확장을 이루었던 것이다.

80) 金杜珍, 〈불교의 수용과 고대사회의 변화〉(《韓國古代史論》, 한길사, 1986), 180~188쪽.

## (1) 한강유역의 확보와 백제·고구려와의 항쟁

진흥왕이 등장할 무렵의 고구려의 사정을 살펴보면 왕위계승 문제로 왕실의 내분이 있어 국내정세가 상당히 불안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欽明天皇 7년(546)에 고구려에서 큰 난리가 있어 죽은 자가 2천여 명에 달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百濟本紀에 이르기를 고구려가 정월 丙午에 中夫人의 아들을 세워 왕위를 잇게 하였는데 나이가 8살이었다. 狍王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正夫人은 아들이 없었고, 중부인이 세자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羸群이며, 소부인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細群이다. 박왕의 병이 위독하게 되자 세군과 추군이 각기 그 부인의 아들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세군측의 죽은 사람이 2천여 명이나 되는 것이다(《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7年 春正月).

이 기록을 《三國史記》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삼국사기》에는 安原王이 죽은 연대를 545년이라고 하여 1년의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안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陽原王은 안원왕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라고 하는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때에 고구려에서는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왕실 내부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이로부터 6년 뒤인 양원왕 7년(551; 신라 진흥왕 12년)에 신라가 居柒夫로 하여금 고구려의 한강 상류지역을 공격할 때에 그가 승려시절에 은혜를 입은 고구려 僧 惠亮을 맞아오게 되었는데, 이 때 해랑이 거칠부에게

지금 우리 나라는 政亂이 일어나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원컨대 귀국으로 데려가 주길 바란다(《三國史記》권 44, 列傳 4, 居柒夫).

고 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다. 아마 당시의 고구려의 왕실 내부의 다툼으로 인해 전반적인 국내정세가 매우 혼미했을 뿐 아니라 민심도 이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무렵의 백제는 성왕이 수도를 熊津에서 泗泚로 遷都하여 국정을 쇄신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 사비로 천도한 후 22部の

中央官署와 5部·5方의 수도 및 지방 행정제도를 갖추었으며, 謙益과 같은 승려를 등용하여 불교의 진흥을 꾀하고 국가의 정신적 토대를 굳게 하였다. 또 밖으로는 중국의 梁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문물을 흡수하였고, 倭와의 친선도 두터이 하여 왜에 여러 방면의 기술자를 보내 주는 이외에 불교를 전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라와는 가야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고구려의 남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맹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내정비와 신라와의 친선관계를 바탕으로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유역의 땅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무렵 등장한 신라의 진흥왕은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처음에는 母后의 섭정을 받았으나 재위 12년(551)에는 開國이라는 年號를 사용하면서 親政을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의 대외정복 사업은 보다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먼저 진흥왕 11년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道薩城과 金峴城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틈을 타 異斯夫로 하여금 두 성을 빼앗았다.<sup>1)</sup> 이 두 성을 둘러싼 공방은 먼저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함락하자 고구려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제의 금현성을 공격하였던 것인데, 두 나라의 병사가 피곤한 틈을 타 신라가 이 두 성을 차지한 것 같다.<sup>2)</sup> 이 두 성의 위치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도살성은 天安 또는 曾坪 근처라고 생각되고, 금현성은 全義로 비정된다.<sup>3)</sup> 이는 모두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요충지가 되는 곳으로 이 지역의 확보를 위해 고구려와 백제가 공방을 벌이는 동안 신라가 이를 모두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해 3월에 진흥왕이 娘城(淸州)에 순수하여 于勒과 그의 제자를 불러 음악의 연주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 순수는 앞의 두 성을 차지한 뒤 새로이 개척된 영토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구려·백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백제의 입장으로는 곧 벌어질 한강유역에 대한 신라와의 합동 공격을 위해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1)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11년.

2) 《三國史記》권 19, 高句麗本紀 7, 양원왕 6년 및 권 26, 百濟本紀 4, 성왕 28년.

3)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乙酉文化社, 1977), 57쪽.

진흥왕 12년(551) 신라와 백제는 한강유역의 공격에 나서게 된다. 신라는 거칠부 등 여덟 장수를 보내 竹嶺 이북 高峴 이내의 10개 군현을 탈취하였고, 백제는 평양을 격파하였는데,<sup>4)</sup> 고현이 어디인지는 불확실하나 죽령 이북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 때에 신라가 획득한 지역은 한강 상류지역의 고구려 영토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이 당시에 건립되었다고 보이는 〈丹陽 赤城碑〉의 위치로 보아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백제가 공취한 지역에 대해 《일본서기》欽明天皇 12년조에 漢城·平壤 등의 6개 군을 취하였다고 했으니 이는 한강 하류지역으로 현재의 서울을 포함한 지역일 것이다. 이로써 백제는 지난날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한강유역의 옛땅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 신라는 백제의 동북지역을 공격하여 이 지역에 新州를 설치하고 각간 武力을 군주로 임명하였다. 이는 백제의 입장에서는 매우 커다란 충격이었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반대로 신라의 입장에서는 고대해 마지않던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신라로서는 한강유역의 비옥한 토지를 점령함으로써 많은 人的·物的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중국과의 교통로를 확보하여 국제관계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를 분리시킴으로 인해 삼국통일의 발판을 마련한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부터 신라와 백제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한강 하류지역을 빼앗긴 직후에 성왕은 자신의 딸을 진흥왕의 小妃로 보내고 있는데, 이는 일단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편입한 것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경계심을 늦추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신라에 대한 본격적인 침입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음해인 554년 7월 성왕은 大加耶軍 및 왜와 합세하여 신라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 나서게 된다. 이 때의 싸움터가 지금의 沃川 부근인 管山城이었는데, 처음에는 백제가 유리한 듯 하였으나 적진 깊숙히 진격한 아들 餘昌(威德王)을 위문하러 성왕이 친히 步騎 50을 이끌고 밤에 가다가 狗川에서 신라의 복병에 의해 살해되고 만다. 이를 틈타 신라의 대반격이 시작되어 백제군을 크게 격파하였는데 당시 백

4)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12년 및 권 44, 列傳 4, 居柒夫.



제의 군사 29,600명이 전사하였다고 한다.<sup>5)</sup>

새로이 확보한 한강유역을 통치하기 위해 신라는 이 지역에 신주를 설치하고 진흥왕 16년(555)에는 왕이 친히 北漢山에 巡幸하여 疆域을 확정지었는데<sup>6)</sup>, 현재 서울에 있는 진흥왕의 <북한산비>는 이 때에 세운 것이다. 진흥왕 18년에는 신주를 폐하고 北漢山州를 두었으며 같은 왕 29년에는 북한산주를 폐하고 南川州(利川)를 설치하였다가 진평왕 16년(594)에는 남천주를 폐하고 다시 북한산주를 두었다. 이렇게 자주 州를 폐하고 설치한 것은 사실은 주의 治所를 옮긴 데 지나지 않는데, 이는 신라가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매우 고심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생각된다. 또 한강의 상류지역에는 고구려의 國原城 자리에 小京을 설치하여 國原小京이라 불렀는데, 이 지역을 정치·문화·군사의 중심지로 개척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진흥왕 19년에는 중앙귀족의 자제와 6부의 豪民을 국원소경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가야에서 귀순한 樂聖 우륵도 이런 사정으로 국원성에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라로서는 국원을 실질적인 한강유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며, 이는 고구려가 이 지역을 남진정책의 기지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라는 북진정책의 기지로 삼으려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南陽灣에는 党項城이란 요새를 쌓아 이를 거점으로 진흥왕 25년 이래 거의 매년 중국의 陳과 北齊 두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외교의 성공에 크게 힘입었던 것을 생각할 때 한강유역의 점령이야말로 통일사업의 큰 기반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라가 백제의 성왕을 죽인 이후 두 나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게 된다. 진흥왕 23년에는 백제가 변경을 침입해 왔고, 眞智王 2년(577)에는 一善 지역에서 백제군의 침입을 격퇴하였으며, 진평왕 24년에는 阿莫城(雲峰)에서 전투가 있었고 같은 왕 33년에는 椴岑城이 백제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신라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善德女王 11년(642)에 있었던 大耶城(陝川)의

5)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15년.

6)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16년.

함락일 것이다. 이 전투에서 신라의 都督 品釋 부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전사하였는데, 품석의 妻는 金春秋의 딸이었다. 이후 김춘추는 백제를 정벌하기 위하여 고구려에 원병을 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직접 당나라에 가서 함께 백제를 공격할 것을 간청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對唐外交에 나서게 되는데 아마도 대야성전투로 인한 백제에 대한 적개심이 그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었을 것이다.

백제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잃어버린 한강유역을 다시 찾기 위하여 여러 차례 군대를 보내 신라의 北邊을 침입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嬰陽王(590~618)初의 溫達장군의 出征이라 하겠다. 平原王의 사위로 일찍이 後周와의 싸움에서 武勇으로 威名을 날린 바 있는 온달은 자청하여 군대를 이끌고 오면서 맹세하기를 “鷄立峴과 竹嶺以西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며 비장한 각오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阿旦那城<sup>7)</sup>의 싸움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 (2) 가야의 병합

6세기에 들어오면 加耶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크게 변하였다. 한강유역을 잃은 백제는 그 보상을 낙동강유역의 가야 땅에서 찾으려 하여 이 지방에 대한 적극적 진출을 피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백제의 움직임은 신라를 자극하게 되었다. 더욱이 백제가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가야에 대해 강한 야욕을 품고 있던 왜를 끌어들이게 되자 가야 여러 나라는 또 다시 격렬한 국제관계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서기》권 17, 繼體紀 7년(513) 11월조에 己汶·帶沙 두 곳의 할양 기사가 보이는데 이는 백제가 왜의 지원을 얻어 이곳에 진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8)</sup> 아마 대가야는 이 당시 소백산맥 이동지역의 여러 나라를 포섭하여

7) 阿旦那城의 위치에 대하여는 이를 흔히 서울의 廣壯津의 峨嵯山城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丹陽의 永春面에는 溫達山城이 있고, 中原郡 上莨面 彌勒里에는 溫達 장군이 갖고 놀았다는 공기가 있는 등 온달장군과 관련된 설화가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永春의 옛 이름이 乙阿旦那縣으로 아단성과 비슷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아단성은 단양의 온달산성으로 보는 견해가 옳을 듯하다.

8) 이 기록에 앞서 繼體紀 6년(512) 12월조에도 왜가 백제에게 上哆唎·下哆唎·

연맹체를 형성한 후, 소백산맥 서쪽으로의 진출을 도모하여 일시적으로 백제의 남원·임실(己汶)지역의 공격에 성공하였으나, 백제의 반격과 외교적 술책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오히려 하동(帶沙)지역까지 위협받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백제의 적극적인 진출에 대해 가야 여러 나라의 맹주인 대가야가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법흥왕 9년(522) 대가야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요청한 것은 바로 백제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신라에 접근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신라는 이 제의를 받아들여 伊滄 比助夫의 누이동생을 대가야에 보냈다.

그 후 신라의 법흥왕은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추진하여 재위 11년에는 南境을 순수하여 영토를 개척하였는데, 이 때 가야왕은 법흥왕에게 회견을 요청하였다. 이 때의 가야왕이 대가야의 왕인지 아니면 금관가야의 왕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를 금관가야의 왕으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sup>9)</sup> 전후 사정으로 보아 대가야로 보는 견해가<sup>10)</sup> 타당하다고 본다. 이로 보아 법흥왕 11년(524)까지는 신라와 대가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이찬 비조부의 누이와 함께 가야지역으로 파견된 신라인 從者 100명의 公服이 문제가 되어 대가야와 신라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신라는 한때 동맹을 파기하고 왕녀를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sup>11)</sup> 이러한 요구는 대가야에 의해 거부되지만 신라는 이를 빌미로 8개의 성을 함락시키는데, 이 8城은 昌原 부근에 있던 卓淳國 인근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娑陀·牟婁 등 이른바 任那 4縣을 割讓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왜가 이 지역을 백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백제와 대가야 사이의 영토분쟁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己汶·帶沙의 위치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기문은 현재의 南原·任實지역, 대사는 河東 일대로 생각된다(金泰植, 《가야 제국연맹의 성립과 변천》,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2, 120~143쪽).

9)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古代篇》(一潮閣, 1982), 162쪽.

朱甫墩,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新羅의 膨脹과 關聯하여—〉(《慶北史學》 4, 1982).

10) 千寬宇, 《加耶史研究》(一潮閣, 1991), 37~51쪽.  
金泰植, 앞의 책, 143쪽.

11) 《日本書紀》권 17, 繼體天皇 23년 3월.

12) 이 때 卓淳國에 인접해 있던 喙己吞國도 멸망한 것으로 보인다(金泰植, 앞의 책, 202~208쪽).

이렇게 가야의 동남부지역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킨 신라는 법흥왕 19년에 드디어 김해의 금관가야를 병합하게 된다.

金官國 왕인 金仇亥가 妃와 세 아들 즉 큰아들인 奴宗, 가운데 武德, 막내인 武力과 함께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왕이 禮를 갖추어 대접하고 上等의 位를 주고, 本國을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아들인 武力은 벼슬이 角干에 이르렀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19년).

위의 《삼국사기》에서는 금관가야가 자발적으로 신라에 병합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무력을 앞세운 신라의 침입으로 어쩔 수 없이 항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가야가 신라의 직접적인 무력 침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신라 제24대 진흥왕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해 오므로 왕은 친히 군사를 사용하여 막았으나 적의 수는 많고 이 편은 적어 마주 겨루어 싸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에 그의 형제인 脫知爾叱今은 본국에 남겨 두고 王子 上孫卒支公 등이 신라로 들어가 항복하였다(《三國遺事》권 2, 紀異 2, 駕洛國記).

그리고 《일본서기》 계체천황 23년 4월조에도 신라의 장수가 3천의 군대를 이끌고 多多羅原에 머물다가 4村을 초락하고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 때에 초락한 4개의 촌 가운데 金官이란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신라의 무력침입은 확실하다고 하겠다.<sup>14)</sup> 또 이 기록에 신라 장수의 이름을 伊叱夫禮智干岐라고 하였는데 이는 異斯夫의 일본식 표기로 보인다.

이 때 신라는 투항한 금관국의 지배계층을 상당히 우대하는 조치를 취한 듯하다. 《삼국사기》에서는 금관국의 왕인 仇亥에게 본국의 땅을 식읍으로 하사하여 그 지배권을 허용한 것처럼 기록하였으나, 실상은 《삼국유사》에 보이

13) 다만 《三國遺事》의 기록에서 ‘제24대 眞興王’이라고 한 것은 편찬자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三國遺事》에는 이 기록에 이어 그 멸망한 연대를 ‘梁 中大通 4년 壬子(법흥왕 19년, 532)’라고 하고 있다.

14) 다만 繼體天皇 23년은 529년으로 법흥왕 19년(523)보다 3년 앞이다. 따라서 529년에 이사부의 침입이 있었고 이보다 3년 뒤에 정식으로 신라에 항복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는 대로 구해의 형제인 脫知에게 금관국의 지배를 맡기고 구해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경주로 이주시킨 것이 사실일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복속한 소국의 왕에게 본국을 食邑으로 하사한 것처럼 보여 대외적인 선전효과를 노린 것이고, 실제 내용은 복속국의 지배층을 분산시켜 원활한 지방지배를 꾀했던 것이다. 신라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복속 지배층의 최고지배자를 본래의 지배기반으로부터 유리시켜 더 이상 위협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라고 보인다. 이러한 방법은 금관국의 경우에서만이 아니고 助賁尼師今代에 복속한 骨伐國의 왕 阿音夫에게 第宅과 田莊을 하사하여 경주에 머무르게 한 것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예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본가야의 멸망은 가야 여러 나라의 앞날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이었다. 신라는 이제 낙동강과 남해안의 교통상의 요충지인 김해를 점령하여 가야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 신라는 지금의 창원지역의 탁순국도 병합하여 남부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완전히 신라에 복속되었다.

이로써 고령의 대가야를 맹주로 하는 가야 여러 나라는 남북 양쪽에서 신라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절박한 사정을 당하여 대가야를 비롯하여 阿羅加耶(咸安)·多羅國(陝川) 등의 가야 여러 나라는 다시금 백제와 왜의 힘을 빌려 이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일본서기》에는 이들 세력이 541년과 544년 두 차례에 걸쳐 백제의 성왕이 주재한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가야연맹이 오히려 백제의 세력권하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야연맹의 세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대가야의 세력 일부는 신라에 투항하기도 하였으니, 진흥왕 12년(551) 왕이 娘城에 순수하였을 때 불러 가야금을 연주하게 하였다는 우륵은 그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신라에 귀화하였던 것이다.

진흥왕 14년 신라가 백제의 동북부지역인 한강 하류지역을 취하여 신주를 설치하게 되자 백제와 신라 사이의 우호관계는 종식되고, 백제의 성왕은 신라를 침공하여 한강 하류의 실지를 회복하고 신라에 대한 우위를 만회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 때에 백제는 가야와 왜의 세력을 끌어들

여 전면적인 신라의 침공에 나서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수의 가야 병력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산성전투에서 백제 성왕의 죽음으로 인해 백제의 대패로 끝나게 되자, 이에 합세한 가야연맹은 맹방인 백제마저 잃고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관산성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신라는 여세를 몰아 가야지방에까지 손을 뻗쳐 다음해인 진흥왕 16년에는 비사벌(昌寧)에 下州<sup>15)</sup>를 설치하였다. 비사벌에 자리잡고 있었던 非火加耶는 이보다 앞서 신라에 멸망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무렵 안라도 신라의 강압과 회유에 못이겨 신라에 투항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신라는 즉각 대가야의 공격에 나서지 않고 먼저 한강유역의 북방에 대한 수비를 확고히 하는 데 진력한다. 비사벌주를 설치한 진흥왕 16년에는 북한산에 순수하여 이 지역에 대한 통치를 확고히 하고, 그 이듬해인 17년에는 비열홀주를 설치하여 동북면에 대한 수비를 강화한다. 그리고 18년에는 국원소경을 설치하고, 사벌주를 甘文州(開寧)로 옮겨 한강 하류로의 통행로를 수비하는 데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新州를 北漢山州로 옮겨 이 지역에 대한 통치를 강화한다. 이러한 북방에 대한 조치가 어느 정도 확실히 된 다음 진흥왕 22년에 이르러 창녕지역에 진흥왕 및 사방군주가 모여 무력시위를 하고, 다음해에 이사부가 이끄는 군대가 가야연맹의 근거지인 대가야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함락시켰던 것이다. 이 전투에서 斯多唆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5천 기를 이끌고 선봉에 서서 먼저 성중에 들어가 白旗를 세워 커다란 공을 세웠다.

이 때 나머지의 여러 가야들도 모두 신라에 병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야 여러 나라들은 신라에 병합되었으나 그 문화와 인물은 신라에 흡수되어 신라문화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야의 악기인 가야금이 신라에 전해져서 신라의 궁중음악으로 채택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본가야 왕족의 후예들이 신라의 진골귀족이 되어 영토확장과 삼국통일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본가야 마지막 왕인 구해의 아들인 武力과 그의 아들인 舒玄, 그리고 그 아들 김유신 등은 3대에 걸쳐 신라의 중요한 전투에서 커다

15) 《三國史記》新羅本紀에는 完山州를 두었다고 하였으나, 地理志 火王郡條에는 下州라고 하였다. 전후의 사정으로 보아 하주가 옳다고 생각된다.

란 공을 세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음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 (3) 대지방민 정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 진흥왕대에는 급격한 영토의 확장을 하게 되고 이것이 나아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커다란 밑받침이 되었다. 그렇다면 신라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며, 또 확대된 영토에 대한 통치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신라가 이렇게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 본다면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외적인 원인으로는 고구려·백제·가야 등 인접국의 국내정세 변동이나 이들 나라와 신라와의 관계 및 중국·왜와의 관계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정치체도의 정비와 불교의 공인, 군사제도의 정비와 화랑도의 설치 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신라가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확보하고 또 통치하기 위해서는 복속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삼국 모두 인근지역을 복속시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획득한 인적 자원은 바로 국력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즉 이 시기의 영역확장은 토지 그 자체보다는 여기에 거주하는 인민 즉 인적 자원의 확보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삼국시대의 세제가 토지보다는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두세적 성격이 강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sup>16)</sup> 따라서 복속된 지역의 인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국력이나 군사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특히 새로이 확보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회유정책은 이들을 통제하는 데 소모되는 군사력을 절약하고 나아가 이들을 다시 전선에 투입함으로써 이중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신라의 대민정책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는 근래에 발견된

16) 金基興, 《三國 및 統一新羅 稅制의 研究》(역사비평사, 1991), 201~205쪽.

〈丹陽 赤城碑〉와 〈蔚珍 鳳坪碑〉를 우선 들 수 있다. 우선 〈적성비〉는 그 上半部가 절단되어 비문 전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적성 공략에 협조하여 공을 세운 也尔次를 비롯한 몇몇 적성인과 그 가족에게 어떤 특전을 베푼다는 것과 앞으로 이와 같은 공을 세운 사람과 그 가족에게는 동등한 은전을 베풀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당시에 아이차를 비롯한 적성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들이 세운 공로는 적성 공략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임은 분명하다.<sup>17)</sup> 따라서 신라의 중앙정부에서는 이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후한 상을 줌으로써 공로에 보답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아이차와 같은 지방민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적성비를 건립했던 것이라 보인다. 이에 반해 〈봉평비〉는 신라에 대해 비협조적인 행위를 한 居伐牟羅 男彌只의 주민과 지방관들에 대한 처벌이 주된 내용이다.<sup>18)</sup> 그러나 양자 모두 지방민에 대한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건립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중고기 이후의 군사조직은 지방민에게 의존하는 바가 매우 컸으며 지방민의 적극적인 군사활동이 통일전쟁에 있어서의 승리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민의 활동을 뒷받침한 신라의 대지방민 정책은 군공포상과 지방민에 대한 홍보정책이며 이는 중고기 전기간을 통해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sup>19)</sup>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신라는 보다 중앙정부에 협조적인 지방인으로 지방세력을 재편하고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지방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明活山城 作城碑〉(진흥왕 12년, 551)와 〈南山新城碑〉(진평왕 13년, 5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규모의 力役동원을 통

17) 李宇泰, 〈丹陽 新羅 赤城碑 建立의 背景—也尔次의 功績과 恩典의 性格을 중심으로—〉(《泰東古典研究》 8, 1992), 3~42쪽.

18) 〈봉평비〉의 해석에는 구구한 견해가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이 居伐牟羅 男彌只에서 일어난 모종의 사태에 대해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볼 수 있다(李宇泰, 〈蔚珍鳳坪新羅碑의 再檢討—碑文의 判讀과 解釋을 중심으로—〉, 《李元淳教授停年紀念 歷史學論叢》, 教學社, 1991, 73~116쪽).

19) 李宇泰, 〈新羅 三國統一의 一要因—對地方民 政策을 中心으로—〉(《韓國古代史研究》 5, 1992), 113~122쪽.



한 왕경에서의 축성사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한 것이었으며, 지방인의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내외에 선포하는 효과도 함께 거두었을 것이다. 이 두 비에 보이는 전국적인 규모의 역역의 동원은 곧 동등한 정도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며, 실제 진흥왕~진평왕대의 대규모 전투와 이를 통한 영토의 확대는 지방인들을 조직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진흥왕대의 비약적인 영토의 확장은 바로 이러한 대민정책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것이며, 또 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힘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 2) 왕권의 강화

### (1) 대왕호의 사용과 연호의 제정

〈봉평비〉에 나타난 신라 최고의 인물은 6부 가운데 탁부를 관장하던 「痲錦王」이며 그는 다른 상층 관등을 보유한 인물들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葛文王이란 존재가 왕권을 대행하거나 정책결정을 동시에 행하는 실질적인 2인자로 나타나고 있어 갈문왕에 의한 왕권의 제약이 상정된다. 이같이 탁부의 장으로서의 매금왕과 沙嚟部の 장으로서의 갈문왕의 병립적 존재는 왕의 권위를 상당히 약화시키는 상황이었다.

신라의 왕이 部를 초월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은 법흥왕대부터였다. 〈川前里 書石 追銘(己未銘)〉에 법흥왕을 另卽知太王이라 하여 법흥왕을 태왕으로 추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천전리서석의 〈乙卯銘〉에는 법흥왕을 聖法興大王이라고 높여 부르고 있는데, 여기의 을묘년은 법흥왕 22년(535)에 해당하므로 법흥왕은 살아 있을 때에 이미 성법흥대왕으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봉평비〉가 만들어진 법흥왕 11년 이후 을묘년인 22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매금왕이란 칭호가 大王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왕의 소속부를 밝히는 관례도 없어진다. 즉 왕은 이전의 梁部の 대표자로서의 매금왕에서 부를 초월하여 신라국가를 대표하는 太王(大王)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마도 연호의 사용이나 불교의 공인과 같은 정치적 변동이 깊숙히 관련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여겨진다. 아마도 법흥왕 23년 年號의 사용이라는, 중국의 황제를 모방하여 천하의 왕임을 선포한 시점에서 신라의 왕은 부를 초월한 존재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흥왕이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재위 23년(536)으로, 대왕이란 칭호가 이미 그 전해인 재위 22년에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대왕 칭호의 사용을 재위 22년 이전인 재위 15년의 불교공인이나 재위 18년의 上大等を 설치한 시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천전리 서석>의 법흥왕 22년의 명문에 성법흥대왕이란 칭호는 그 명칭으로 보아 불교의 공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천전리 서석>의 법흥왕 26년 추명에 另卽知太王이란 칭호가 보이므로 대왕(태왕)이란 칭호는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한결 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왕 칭호의 사용은 상대등 설치나 연호의 사용과 같은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그 시기는 530년대 초반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후에 출현하는 금석문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550년경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단양 적성비>에는 이전 시기의 비문들과는 다르게 왕이 「敎事」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적성비>에 보면 왕은 「大衆等」에게 교사를 내리고 있는데, <봉평비>의 경우 이들이 왕과 함께 교사를 행하는 존재였음을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왕이 초월적 존재로서 신하에 군림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화된 왕의 위상은 <진흥왕 순수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순수비>에 보이는 眞興太王・新羅大王(北漢山碑) 및 朕(磨雲嶺碑)이란 표현은 중국의 천자에 비견되는 대왕으로서의 왕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진흥왕 6년(545)에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한 것도 이러한 왕권의 강화와 관련있는 일이라 하겠으니 왕실 중심의 새로운 역사가 이 때에 정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왕호의 변경과 연호의 사용은 단순한 명칭상의 변경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라 왕실의 권위를 과시한 것이라 하겠다.

## (2) 상대등과 관부의 설치

이렇게 왕이 전시기의 6부 대표자의 하나였던 존재를 초월하게 됨에 따라, 지난날 왕이 수행하던 화백회의의 의장의 역할을 대신할 직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上大等이라는 관직의 창설이다. 법흥왕 18년(531)에 설치된 상대등의 기능은 귀족회의인 대등회의의 주재자로 귀족과 왕 사이에서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졌다. 또 상대등은 왕의 교체와 거취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는 왕의 권력과 권위를 서로 보완하는 존재이지만, 스스로 귀족의 통솔자이며 대표자라는 점에서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기도 한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 또 정당한 왕위계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왕위를 계승할 제일 후보로 여겨지기도 하였다.<sup>20)</sup>

다만 執事部の 설치를 계기로 국가의 정무를 분장하는 새로운 관부가 만들어지자 어느 관청에도 소속되지 않는 大等の 존재 의미는 축소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삼국통일 이후 전제왕권의 성립과 더불어 상대등으로 상징되던 和白的 권위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그러나 합좌제적인 정치운영의 전통은 여전히 강인하게 잔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집사부를 비롯한 주요 관청의 장관직인 帥이 복수로 임명된 것이나 이들 장관직이 겸직의 형태로 몇몇 진골귀족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던 것은 이런 합좌제도의 운영방침에 의한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정무를 담당한 중앙관부의 설치는 상대적으로 왕권의 강화를 가져왔다. 법흥왕 3년에 병부의 설치를 시작으로 진흥왕 5년(544)에는 司正府가 설치되었고, 같은 왕 26년에는 정무의 중심기관으로 稟主가 설치되었는데, 국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점차 여러 관부가 분화 증치되었다. 진평왕대에는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位和府와 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調府, 의례와 교육을 담당하는 禮部, 왕의 函簿 사무를 담당하는 乘府, 대외관계와 사신의 접대를 맡는 領客府, 관리들의 논공행상을 담당하는 賞賜署 등이 설치되어 관제가 대폭 정비되었다.<sup>21)</sup> 이와 함께 진평왕 7년(585)에는 大宮·沙梁宮·梁宮 등에

20) 李基白, 〈上大等考〉(《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99~100쪽.

21) 李基白, 〈稟主考〉(위의 책), 134~148쪽.

각각 사신 1명을 두어 관장케 하였던 것을 이 때에 통합하여 內省을 설치하여 정식 기구화하였다. 내성은 왕실의 재산관리와 왕명의 출납 등이 그 중요한 기능이었는데, 이 내성의 권한은 중대 이후에 급격히 확장되어 兵部·司正府와 함께 권력의 핵심기관이 되었다고 보여진다.<sup>22)</sup> 이러한 근시기구가 진평왕대에 설립되었다는 것은 바로 보다 강력한 왕권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진덕여왕 5년(651)에는 기존의 품주가 국가의 기밀사무를 맡은 집사부와 재정을 관장한 倉部로 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집사부는 국왕 밑의 중추기구로 되고 그 장관인 中侍가 왕권의 방과제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중앙관부의 정비는 왕권의 강화와 직결되는 것이었다.<sup>23)</sup> 이제 신라의 왕은 관료조직에 입각한 정부(관부)와 귀족회의인 大等會議라는 이원적인 권력구조를 정비하게 되었고, 이 두 기구 위에 군림하여 신라왕국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 (3) 화랑도

진흥왕대에 제도화된 花郎徒도 신라가 고대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다. 화랑도의 기원은 원시시대 이래의 연령집단조직이라 생각되는데, 연령집단이란 일정한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지며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단체생활과 공동의 의식을 수행하며 그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질서를 體得하고 동일한 이상을 추구하며 가무와 무예를 익혀 서로간의 이해와 우의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sup>24)</sup>

이 연령집단은 村落 내지는 부락단위로 조직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식세계의 형성 또한 일정한 제약을 받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신라가 대내외적인 팽창을 하는 가운데 정복전쟁의 수행을 위해 많은 병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청소년 조직의 개편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화

22) 李基東, 〈新羅 中代の 官僚制와 骨品制〉(《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137~141쪽.

23) 李基白, 〈新羅 執事部の 成立〉(앞의 책), 149~172쪽.

24) 李基東, 〈新羅 花郎徒의 起源에 對한 一考察〉(앞의 책), 305~328쪽.

랑도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군대의 보충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하였으나 보다 큰 목적은 인재의 양성과 확보에 있었다. 金大問의 《花郎世紀》 서문에서 “현명한 재상과 충신이 이로부터 솟아나고 훌륭한 장수와 용맹한 군졸들이 이로 말미암아 나왔다”<sup>25)</sup>는 것은 바로 화랑도의 창설 목적과 그 기능을 잘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 이 화랑도에 불교 승려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예가 보이며,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때로는 화랑을 彌勒의 화신으로 여기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화랑도의 정신적 기반으로 불교가 채택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화랑도의 수령인 화랑은 도솔천에서 하생한 미륵으로 여겨졌으며 그 무리들은 미륵을 좇는 무리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화랑도가 신앙운동이 목적인 단체는 아니었으며, 그 조직 자체는 어디까지나 현실과 왕권과 권력기구를 옹호하는 단체였다.<sup>26)</sup> 이는 화랑도가 지켜야 할 계율인 원광의 世俗五戒에도 잘 나타나 있다. 화랑도의 설치는 정치적인 면에서 중앙 집권화 즉 왕권강화와 연결되어 전개되었던 것이다.

〈李宇泰〉

25)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37년.

26) 李基東, 〈新羅 花郎徒의 社會學的 考察〉(앞의 책), 328~365쪽.